INVITATION TO THE ARTS
AUGUST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6 08 vol.296

Cover Story

웅산의 Fun Fun Fun Jazz

세계의 공연장
한여름에 만나는 유럽의 야외 오페라 축제

축제속으로 고고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재즈보컬리스트 웅산

비엔그룹·대선주조 와 함께하는

제9회 대한민국기업사랑 음악회

비엔그룹·대선주조 와 함께하는

BERLIN SYMPHONY ORCHESTRA

베를린심포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3 개 도 시 순 회 연 주

주 최 KNN 비엔그룹 후 원 대선주조 넥센월석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협 찬 HAEUNDAE GRAND HOTEL

BIP 비아이피(주) STEELA 비엔스틸라(주) COSMO (주)코스모 SNB 에스엔비(주) BIPEX (주)바이펙스 FURNITURE 비엔가구(주) BISCO (주)비스코 AISCO 아이스코(주)

KNN 특별연주회

베토벤 | L. v. Beethoven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작품43
Overture <The Creatures of Prometheus> in C Major, Op.43

삼중협주곡 작품56
Triple Concerto for Violin, Cello, Piano and Orchestra in C Major, Op.56

교향곡 제7번 작품92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지휘 오충근
Choong-Keun Oh

코스모폴리탄 트리오 비엔나
Cosmopolitan Trio Vienna

BN 비엔그룹 • 순한시원 은
예술을 사랑하며 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 지역출신 예술가를 적극 후원합니다.

2016. 9. 9. Fri. pm.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9.10. Sat. pm. 7:00 |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9.11. Sun. pm. 5:00 |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 의 KNN 051-850-9568,9566
예 매 INTERPARK 1544-1555
티 켓 VIP석 20만원 · R석 15만원 · S석 10만원 · A석 5만원

BN STEEL 비엔철강(주)
BN CHEMICAL 비엔케미칼(주)
BN DAESUN 대선주조(주)
BN BAUM 바움크리에이티브(주)
BN BIP-WEIHAI 부일방화판재유한공사(중국)
BN USA BN USA, Inc.
BK INVESTMENT 비케이 인베스트먼트(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2016 부산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2016.08.09.[화] ~ 08.14.[일]

장소 _ **동래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부산 민주공원**

주최·주관 _ **2016 부산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추진단**

입장료 _ **무료**

동래문화회관

- 08.09. 화 [19:30] 극단 누리에 _ 개 짖는 날
- 08.11. 목 [19:30] 극단 자갈치 _ 창작 마당극 "新 수궁뎐"
- 08.12. 금 [19:30] 드림문화예술 _ 오페라 사랑의 묘약
- 08.14. 일 [17:00] 극단 에저또 _ 검정고무신 2

해운대문화회관

- 08.09. 화 [19:30]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_ Wiener Klassik
- 08.10. 수 [19:30]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_ 현악 사중주의 밤
- 08.11. 목 [19:30] T.I.F. 오케스트라 _ 관악 앙상블의 밤
- 08.12. 금 [19:30] 네오필 오케스트라 _ Summer night "세레나 콘서트"

부산민주공원

- 08.12. 금 [19:30] 우리소리 우리가락 청 X 효원국악관현악단 _ 한여름밤 우리음악 축전 "더위야 물렀거라"
- 08.13. 토 [17:00] 무용단 Redstep _ 창작춤 [縮]

후원 _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문의 _ 동래문화회관 051-550-6611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 부산민주공원 051-790-7400

"본 공연은 2016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를 빛낸 부산출신 피아니스트
콘체르토 페스티벌
Concerto Festival

4인의 피아니스트가 화려하게 펼치는
라벨, 베토벤, 리스트, 차이코프스키 등
명품 피아노협주곡의 감동을
놓치지 마십시오!

황성훈
M.Ravel
Piano Concerto in G Major

탁영아
L.v.Beethoven
Piano Concerto No.5 "Emperor"

송유진
F.Liszt
Piano Concerto No.1

김다솔
P.I.Tchaikovsky
Piano Concerto No.1

지휘 이병욱

KNN방송교향악단

2016. 8. 17수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아트매니지먼트 공연문의. 051) 607-6065

티켓. VIP석 5만원 / R석 4만원 / S석 3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특별기획연주회

팔방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이정필
(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박성희 (노래)

정선희 (노래)

이 상 (노래)

백흥선 (재즈가수)

방병원 (해금)

강혜성 (재즈피아노)

오연준 (노래)

위나 (재즈가수)

Koul 밴드

Program

1. Brand New / 작곡: 이지영
2. 가요와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 영화 왕의 남자 ost [인연] / 노래: 박성희
   - 신사랑가 / 노래: 정선희
3. This love, 하늘을 달리다 / 노래: 이상
4. Fly me to the moon, Autumn leaves / 재즈가수: 백흥선
5. 썸머타임 / 작곡: 조지거쉰 / 해금: 방병원
6. isn't she lovley, Tequila / 재즈피아노: 강혜성
7. 바람의 빛깔 (포카혼타스 ost), 버터플라이 (국가대표 ost) / 제주소년: 오연준
8. cheek to cheek, mercy / 재즈가수: 위나
9. 아름다운 강산, Takes Five / 노래: Koul 밴드

2016. 8. 18(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부산광역시 |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 문의 607-3105 (홍보팀), 607-3143 (공연운영팀) | 입장권 A석 10,000원 B석 5,000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CONTENTS

CULTURAL STORY

08 **커버스토리**
웅산의 Fun Fun Fun Jazz

10 **8월 공연 캘린더**

12 **반갑습니다**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음악감독 금난새

14 **세계의 공연장**
한여름에 만나는 유럽의 야외 오페라 축제

18 **축제속으로 고고**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20 **테마가 있는 여행**
천년고찰 직지사를 품고 있는 김천 여름여행

BOARDS INSIDE

26 **프리뷰**

36 **리뷰**

38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52 **새로 나온 음반**

53 **새로 나온 책**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6년 8월호 통권 296호

발행처 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이승호 **편집인** 손금숙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6년 7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웅산의 FUN FUN FUN JAZZ

아시아를 대표하는 매력적인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 8월 11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부산을 찾는다.

수려한 외모와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로 객석을 압도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은 뛰어난 곡 해석력으로 섬세한 발라드에서부터 강한 비트의 노래까지, 그가 가진 특유의 감성과 따뜻한 음색, 혼이 담겨 있는 독특한 목소리로 감동을 선사해왔다. 특히 타고난 그루브(Groove)감과 블루스적인 해석은 그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자 무기로, 예술성과 대중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그의 노래는 재즈음악 애호가들 뿐 아니라 대중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아 왔다.

'몇천 년을 그대로 있는 산'이라는 뜻을 지닌 웅산(雄山)은 그의 예명만큼이나 독특한 이력으로 유명하다. 열여덟 나이에 비구니의 꿈을 안고 단양 구인사에 들어가 2년여간의 수행시간을 보낸 웅산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음악에 대한 열망을 깨닫고 하산한 후 대학시절 록 밴드 활동을 통해 음악에 입문했다. 웅산이라는 예명은 바로 그 시절, 출가 당시 얻었던 법명이다. 1993년 MBC 대학가요제 인기상, 가창상을 수상하며 가수의 꿈을 꾸던 웅산은 어느 날 친구가 우연히 건네준 전설의 재즈 보컬 '빌리 홀리데이'의 음반을 듣고 재즈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는다. 1996년 재즈 가수로 데뷔한 웅산은 2001년 재즈 전문잡지 MM JAZZ 인기투표 1위, 2003년 MM JAZZ 베스트 뮤지션을 거쳐 2008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 크로스오버 음반상 및 노래상으로 2관왕을 수상하고 그 해 독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최고 연주자를 선정하는 역사와 전통의 '리더스폴 베스트 보컬'에 선정됐다. 특히 웅산은 지난해에도 '리더스폴 베스트 보컬'에 다시한번 선정되면서 국내 최고의 재즈 디바로 그 명성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특히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해온 웅산은 일본에서도 인정받는 아시아 최고의 보컬리스트이다. '한류'라는 단어가 생기기 훨씬 전인 1998년부터 일본에 진출해 활동해온 웅산은 일본 재즈 명예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오사카 '빌보드 라이브'와 나고야 '블루노트'에서 단독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세계적인 일본 재즈 전문잡지인 '스윙저널' 골드디스크를 한국인 최초로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2011년과 2013년에는 일본 '재즈비평'이 주관하는 '재즈오디오디스크대상' 앨범상, 보컬부문 금상(2관왕)과 보컬부문 은상을 수상, 아시아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로 그 명성을 입증했다.

지난 2014년 10월, 생애 최초 베스트앨범 'WOONGSAN THE BEST'를 발매하며 세계 최정상의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성장을 보여준 웅산은 올해 TV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즈의 대중화를 위해 TV 무대에 선 웅산은 이날 무대에서 가요 '술이야'를 그만의 색다른 감성으로 소화하면서 방송 직후 10만 4천건의 조회수를 올리기도 했다. 재즈 보컬리스트 뿐만 아니라 싱어송라이터, 뮤지컬 배우, 음악방송 MC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웅산은 현재 경희대학교 포스터모던과 보컬교수, 상명대학원 뮤직테크놀러지학과 겸임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재즈는 어렵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깨고 대중들도 쉽게 재즈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누가 들어도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즈 레퍼토리를 들려줄 이번 무대에서는 웅산과 함께 박철우(드럼), 황호규(베이스), 민경인(피아노), 박경호(기타), 이인관(색소폰) 등 한국 최고의 재즈 뮤지션들로 구성된 웅산밴드가 출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복권기금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여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의 기획프로그램 사업인 〈웅산의 Fun Fun Fun Jazz〉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8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 **프로그램**

01. Nothing compares to you
02. Yo soy maria
03. You hurt me
04. 밤안개 버젼별 설명
05. Light my fire
06. 님은 먼곳에
07. Use me
08. Get up stand up
09. A song for you
10. Volare
11. Mercy
12. Take me to the river

※곡목과 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8

2016 AUGUST

SUN	MON	TUE
	1	2
7	8	9
14	15 소 제8회 포천아트밸리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대회 부산예선 09:00 (주)애스투(010-4807-9981)	16
21 중 제34회 전국 공모 KBS부산 무용콩쿠르 예선 10:00 KBS부산(620-7327) 소 꿈꾸는 청춘가악 15:00 초대/신채영(010-3955-4918)	22	23 대 제7회 웰니스병원 음악회 '오주영 리사이틀' 19:30 5만원·3만원·2만원/부산문화(1600-1803)
28 대 2016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 'Opening Concert' 17:00,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 19:30 3만원·2만원·1만원(드림프로젝트는 무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516-8293~4) 중 핀아국제앙상블 '물의 소리' 15:00 1만원·5천원 (주)핀아컴퍼니(070-4025-1556)	29	30 대 2016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청소년을 위한 스쿨 클래식' 16:00 무료(문화가 있는 날)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516-8293~4)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WED	THU	FRI	SAT
3	**4**	**5**	**6**
	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Piano In 여름 음악회' 19:30 1만원·5천원/Piano In(031-670-3305)	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이혜경 피아노 독주회' 19:30 1만원·5천원/Piano In(031-670-3305)	중 노경원 피아노 독주회 '건반에 비친 물의 신비' 17:00 1만원·5천원/(주)핀아컴퍼니(070-4025-1556) 소 토요상설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
10	**11**	**12**	**13**
소 출산장려 가족뮤지컬 '아빠! 엄마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11:00 초대/뮤지컬컴퍼니 끼리프로젝트(988-7721)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웅산의 Fun Fun Fun Jazz' 19:30 2만원·1만원·5천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소 출산장려 가족뮤지컬 '아빠! 엄마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11:00 초대/뮤지컬컴퍼니 끼리프로젝트(988-7721)	소 출산장려 가족뮤지컬 '아빠! 엄마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19:30 초대/뮤지컬컴퍼니 끼리프로젝트(988-7721)	중 부산대학교 의·치대 관현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부산의치대관현악단(010-4102-5648) 소 토요상설무대 '(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
17	**18**	**19**	**20**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콘체르토 페스티벌' 19:30 5만원·4만원·3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 중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10:15, 11:20 균일 4차원(단체관람) 희망극단(02-387-9411)	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팥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05, 3143)		중 제34회 전국 공모 KBS부산 무용콩쿠르 예선 10:00 KBS부산(620-7327) 소 토요상설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크로노스 앙상블'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
24	**25**	**26**	**27**
	대 제1182회 MBC목요음악회_해피앙상블 드라마콘서트 '응답하라 학창시절' 19:30 1만원·5천원 (사)문화도시 네트워크(760-1494) 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6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07, 3154)	대 2016 테너 오동주의 스토리 콘서트 19:30 균일 2만원/오동주(010-4556-5058) 중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해설이 있는 2016 웰빙콘서트 III '독일 음악 여행' 11: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5) 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6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07, 3154)	중 제22회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무료/조의진(010-9875-0700) 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6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16:00, 19:0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07, 3154)
31	**9/1**	**2**	**3**
	대 2016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V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 19:30 균일 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516-8293~4)	중 2016 부산창작오케스트라의 밤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	대 2016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VII 'Closing Concert' 17:0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516-8293~4) 중 (사)한국발레협회 부산경남지회 창단공연 18:00 균일 2만원/(사)한국발레협회 부산경남지회 (070-8883-8004) 소 토요상설무대 '부산시립무용단'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소 소극장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축제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14년 첫 선을 보인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이 올해로 3회를 맞는다. 특히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휘자 금난새 씨가 1회부터 음악감독을 맡아 매년 다채로운 실내악 성찬으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아왔다. 9월 8일 그 화려한 막을 여는 세 번째 축제를 앞두고 음악감독 금난새 씨를 서면인터뷰를 통해 만났다.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음악감독 금난새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제 고향이 부산인 관계로 부산의 문화 예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부산은 대도시인 만큼 영화,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에 걸맞게 문화예술도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형 음악회에 치중되는 우리 음악계에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작은 편성의 음악을 위한 챔버뮤직페스티벌을 시작하게 되었고, 다행히 관객분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봐 준 덕에 올해 벌써 3회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만의 색깔이라 하면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공연이라고 할까요? 접시에 담긴 음식을 두루미에게 주고, 호리병에 담긴 음식을 여우에게 담아주던 이솝우화가 생각나네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음악을 하지 못하면 그 관객은 고통스러워요. '나 이렇게 멋진 요리를 했는데 너 왜 안 먹니?'라고 말할 게 아니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음악에 대한 열정과 멋진 미소로 청중과 교감하는 연주자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연주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연주 실력은 기본으로 하되 연주자의 태도나, 무대매너 그리고 청중들과 얼마큼 교감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거기에 멋진 미소까지 겸비한다면 더욱 더 바랄 게 없겠죠. 이번에 참여하는 스웨덴 출신 '듀오 케미(Duo KeMi)'는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함께 호흡했던 연주자들이에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순수함이 동시에 묻어난다는 것이 그들이 가진 매력이에요. 또한 이미 실내악 음악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트리오 제이드와 부산시립교향악단&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카메라타 BS가 참여합니다.

다양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평소 우리 사회가 음악을 대형공연 위주로 편식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사한 콘서트 홀이 아니더라도 건물 로비, 공원, 고궁, 작은 도서관 등 청중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음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 장소에 얽매이기보다는 다양한 청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클래식, 특히 실내악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청중이 쉽게 공연장에 오게 하자'는 것이 저의 큰 목표가 됐죠.

이번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또한 마찬가지에요. 지난 2회까지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만 진행을 했었어요. 올해는 시립미술관의 협조를 받아 미술관에서도 하루 연주하게 되었답니다. 마침 부산비엔날레 기간이라 더 많은 관객들이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답니다. 앞으로는 부산지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음악회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실내악 음악 뿐 아니라 재즈, 영화음악, 발레 등 다양한 장르로도 확대되어 페스티벌을 풍성하게 만들어 보고도 싶고요. 청중이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열쇠는 결국 청중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20년 넘게 이어온 부산 관객과의 만남

얼마 전 일인데, 평소 알고 지내는 부산의 한 첼로 선생에게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자기한테 첼로를 배우러 온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됐냐고 물었더니 지휘자 금난새가 진행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라는 음악회를 보고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그 첼로 선생은 그 얘길 듣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제 음악회가 물론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저로 인해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책임감도 생겨났고요. 전과 다름없이 매년 같은 장소에서 부산의 관객을 만나고 있지만, 그들의 열정적인 호응에 매번 놀라곤 합니다. 20년 전 제 음악을 듣고 자란 학생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 공연장을 다시 찾았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 음악과 인생은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답니다.

편안한 느낌으로 즐기는 실내악의 향연으로 초대

요즘은 굳이 공연장을 찾지 않더라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손쉽게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관객을 공연장으로 이끌기 위해선 점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답니다. 좁은 의자에 앉아서 한 두 시간을 견뎌야 하는 '고행의 시간'이 아니라 마치 자기 집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TV를 보는 듯한 편안한 느낌으로 실내악 음악을 즐기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휘자 금난새'라는 사람은 지휘자이기도 하지만 클래식 음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이기도 하답니다. 클래식 음악이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진다면 공연장으로 오세요.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웃음)

한여름에 만나는 유럽의 야외 오페라 축제

글·사진 이 상 훈 드림원정대 대표

유럽의 오페라극장은 대개 9월에 시즌을 시작하여 이듬해 6월 말, 7월 초 시즌을 마감한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인 도시들이 있다. 바로 오페라 축제가 열리는 도시들이다. 시즌이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바이에른 국립가극장(Bayern Staatsoper)의 뮌헨 오페라 축제(Munich Opera Festival)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시즌이 조금 더 연장되는 성격이 강하다. 오히려 한여름 오페라 축제의 백미는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일 것이다. 7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에서 공연되는데, 리엔치(Rienzi)를 제외한 바그너의 오페라 작품만이 공연된다. 유럽의 모든 음악축제 중 가장 티켓 구하기가 어려운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여름 우리의 눈과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페스티벌의 백미는 야외 오페라 축제가 아닐까 싶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페스티벌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지난 지면에서 다루었으니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야외 오페라 축제를 이야기해보자. 먼저 남프랑스의 작은 도시 오랑주에서 열리는 오랑주 오페라 축제(Choregies d'Orange: 꼬레지에 도랑쥬)가 있다. 마르세유, 아를, 아비뇽 등의 이웃도시들에 비해 오랑주는 다소 이름이 생소하지만 독특한 형태의 아레나를 가지고 있어서 야외 오페라 무대가 올라가기는 제격이다.

사실 남프랑스 아를에도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된 아레나가 있긴 하지만, 오랑주의 아레나는 조금 더 특별하다. 우선 그 크기가 폭 103m, 높이 30m의 반원형 모양으로 마치 오페라 무대를 올리기 위해 설계된 것 마냥 프로시니엄 극장의 장점도 일부 가진 평면 구조로 되어 있다. 게다가 약 9천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어서 충분히 규모있는 작품을 올릴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그 가능성은 베로나 오페라 축제보다 일찍 예견되어 1869년부터 오페라 축제가 열리고 있다. 오랑주 오페라 축제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

오랑주 오페라 축제

래된 음악축제이기도 하다. 2012년 가을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지휘자 정명훈과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함께 오페라 '라보엠'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데 이는 그해 오랑주 오페라 축제의 라인업이었다. 보통 남프랑스와 파리의 몇 오케스트라가 이 축제의 연주를 번갈아 맡곤 하는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과 인연이 있는 지휘자 정명훈 씨를 종종 오랑주 무대에서 볼 수 있다. 특히 2014년에는 바리톤 고성현과 함께 '오텔로'를 연주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올해는 단연 플라시도 도밍고가 무대에 서는 '라트라비아타'가 하이라이트이며, 최고의 소프라노로 각광받고 있는 소냐 욘체바와 사이미르 피구르가 리릭 콘서트를 열기도 한다.

베로나 오페라 축제

두번째로 푸치니 페스티벌(Puccini Festival)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의 작은 마을 토레 델 라고 푸치니(Torre del Lago Puccini)에서 매년 여름에 열리는 오페라 축제로 작곡가 푸치니를 기리는 오페라 축제다.

베르디와 더불어 이탈리아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손꼽히는 푸치니는 생전에 30여 년간 토레 델 라고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 1924년 푸치니가 세상을 떠난 후, 1930년에 그의 친구와 제자들의 주도로 첫 번째 오페라 '라보엠'을 그가 살던 집 근처에서 연주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31년에 한 번 더 공연이 이루어졌으나 계속되지 못하다가 푸치니 사망 25주년인 1949년이 되어서야 다시 공연이 열릴 수 있었다.

이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토스카나 주 정부는 푸치니를 기리는 정기적인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해, 1952년부터 토레 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이 여름 두 달 동안 열리게 되었다.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루카(Lucca)에서 태어난 푸치니는 평소 사냥을 매우 즐겼는데 그에게 조용하고 외진 마을 토레 델 라고는 오페라를 작곡하기 최적의 장소였으며, 1891년경부터 1921년까지 토레 델 라고에 머무는 동안 '나비 부인', '토스카', '투란도트' 등의 대표작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1990년부터는 푸치니 페스티벌 재단(Fondazione Festival Pucciniano)이 설립되며 축제는 좀 더 짜임새를 갖추어 진행되기 시작했고, 2008년 지금 모습의 야외 극장이 새로이 지어졌다. 어느덧 62회를 맞는 2016 푸치니 페스티벌에는 '토스카', '라보엠', '투란도트', '나비부인' 등 네 작품이 날짜를 달리하여 공연된다.

베로나 오페라 축제(Arena di Verona Festival)는 이탈리아 북부 베로나의 고대 로마 유적인 아레나 디 베로나(Arena di Verona)에서 매년 6~9월에 열리는 오페라 축제이다. 1913년 8월 10일 베르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처음 개최됐으며, 축제 기간 동안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인 베르디와 푸치니, 로시니의 작품을 중심으로 오페라 및 갈라콘서트가 무대에 올라간다. 약 2만 명의 관람객이 수용 가능하며 해마다 6~7편의 오페라가 번갈아 무대에 올려지는데 그 횟수가 무려 50여 차례 가까이 공연이 된다. 참고로 베로나의 아레나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원형경기장이다. 7월~9월 로열 앨버트홀에서 석 달 동안 공연되는 BBC PROMS 프롬스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축제라고 말하는데, 이는 실상 5천 석 이상 들어가는 로열앨버트 홀 때문에 주최측인 BBC에서 만든 광고 카피이다. 하지만 매진이 되면 2만 명이 들어가는 베로나의 아레나야말로 가장 큰 규모의 음악축제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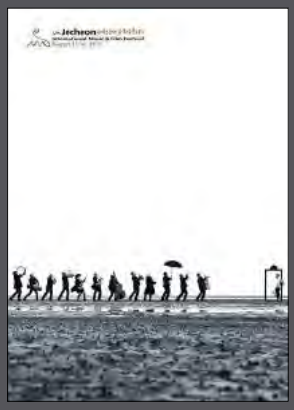
베로나 오페라 축제에서 최초로 무대에 오른 작품은 베르디의 '아이다'였다. 그 외에도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나부코' 같은 베르디의 작품과 '투란도트', '라보엠' 등의 푸치니의 작품이 축제의 주요 레퍼토리다. 최근에는 베로나 시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 무대– 실제 베로나에는 가공이긴 하지만 줄리엣의 집(Casa di giulietta)이 있다. –라는 점을 살려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하기도 했다. 많은 성악가들이 아레나 디 베로나 오페라 축제를 통해 이

베로나 오페라 축제

름을 알리고 명성을 쌓았는데 역시 대표적인 인물은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Maria Callas)이다. 그녀는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정기적으로 아레나 디 베로나 오페라 축제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현역 최고의 리골레토, 레오누치를 아레나 무대에서 만날 수도 있었다.

해가 늦게지는 특성상 야외 오페라는 보통 9시 전후로 공연이 시작되는데 베로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질 무렵 객석에서 미리 나눠준 초를 들고 오페라의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은 베로나 오페라 축제만의 진풍경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의 여름은 무덥다. 그렇지만 일교차가 또한 분명하여 한 낮 땡볕의 더위가 무색하게 해가 지면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게 이곳 날씨이다. 야외 무대에서 달빛을 조명삼아 펼쳐지는 오페라 축제는 분명 드라마틱한 경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야외공연장이기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규정상 공연이 시작해서 1막이 지나면 환불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마냥 비가 온다고 공연을 접는 경우는 드물다. 2만 명 가까이 운집한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허탈하게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대개 지나가는 소낙비가 많기에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공연은 지속된다. 비가 오는 게 관람객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지만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몇 방울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나 싶으면 지휘자의 사인이 있기도 전에 현악기 주자들이 악기를 안고 잽싸게 자리를 피한다. 고가의 현악기를 비에 맞힐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수차례 9시에 시작한 공연이 1시가 훨씬 넘어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관객은 자리를 뜨지 않는다. 이탈리아인의 오페라 사랑이 그러하다.

여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대개 직장인들의 휴가 시즌이 이맘 때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오페라 팬들은 한여름 만나는 오페라 축제를 손꼽아 기다린다. 오랑주에서, 토레 델라고에서, 그리고 베로나에서…. 부산은 여름이면 수만 아니 수십만의 피서객들이 발걸음을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휴양도시이다. 이 발걸음을 몇 몇 해수욕장에서만 그치기는 아쉽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부산 오페라하우스에서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멋진 오페라 축제를 만나기를 기대해본다.



8.11 (목) ~ **16** (화)

메가박스 제천,
청풍호반무대, 의림지무대 등 제천시 일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043-646-2242, www.jimff.org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제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8월 11일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난 2005년 첫 발을 내딛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그동안 세대와 취향의 벽을 뛰어넘어 영화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음악축제이자 '청풍명월'의 도시 제천의 절경 속에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국내 유일의 휴양영화제로 한 여름의 낭만과 추억을 선사해왔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8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6일간 대장정에 들어간다. 전 세계 100여 편의 음악영화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생생한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영화제 기간 동안 제천시에서는 신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8월 11일 오후 7시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청풍호반무대에서 열린다. 그동안 음악영화제로서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개막식을 꾸며온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개막작을 국내 음악영화인 '하늘의 황금마차(감독/오멸)', '다방의 푸른 꿈(감독/김대현)'으로 선정하고 영화 상영과 함께 영화에 직접 출연했던 뮤지션 '킹스턴 루디스카', 가수 김민자(김시스터즈)가 특별공연을

펼쳐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동안 영화 '원스', '서칭 포 슈가맨', '치코와 리타', '프랭크', '에이미', '하늘의 황금마차' 등 국내외 다양한 음악영화를 소개해온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올해도 국제경쟁부문인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을 비롯해 다양한 음악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는 '뮤직 인 사이트', 뮤지컬을 비롯한 음악이나 음악가를 소재로 다룬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소개하는 '시네 심포니', 음악장르나 지역 등 하나의 주제 아래 이와 관련된 신작과 기존작을 한데 모아 상영하는 '주제와 변주', 장르 구분없이 음악을 소재로 한 국내 장,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세대를 초월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영화들로 구성된 '패밀리 페스트', 그리고 제천국제음악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무성영화 상영과 함께 라이브 음악을 현장에서 연주하는 '시네마 콘서트' 등 다양한 섹션을 통해 전 세계 음악영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특히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네마 콘서트'는 그동안 '들고양이', '유령의 성', '행복', '청춘의 십자로', '골렘', '제너럴', '지나가는 마음', '항해자', '키드 브라더', '안전불감증', '부초 이야기', '항구의 일본 아가씨', '오페라의 유령', '마마보이 해롤드'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무성영화를 상영해왔으며 마누엘 궤칭, 게리 루카스, 라디오 멘탈, 라일리 리, 필립 칼리, 야나시타 미에, 도날드 소신, 조안나 시튼 등 세계적인 무성영화 연주자들이 제천을 찾아 환상적인 연주를 선보여왔다.

유명 연주자들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 또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빠질 수 없는 즐거움으로, 당대 최고 뮤지션들이 제천을 찾은 관객들에게 한 여름밤 낭만을 선사한다. 우선 영화상영과 음악공연이 함께 펼쳐지는 '원 썸머 나잇'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청풍호를 배경으로 뮤지션들의 열정적인 공연이 펼쳐진다. 지난해까지 이승환, YB, 장미여관, 이적, 김창완 밴드, 넬, DJ DOC, 혁오, 국카스텐, 이문세, 전인권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 정엽, 십센치, 자이언티, 리쌍 등 최고의 뮤지션들이 청풍호반무대를 찾아 뜨거운 여름 밤에 열기를 더해왔다.

제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의림지에서 펼쳐지는 '의림 썸머 나잇'은 제천 시내에서 위치해 있어 특히 제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무대로, 실력있는 신인 뮤지션을 발굴, 지원하는 '거리의 악사 페스티벌' 본선 경연 무대를 비롯해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신바람 이박사, 우주히피, 킹스턴 루디스카, 허클베리피,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윈디시티 등 개성 넘치는 뮤지션들의 무대로 꾸며왔다.

영화음악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음악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천영화음악상' 은 지난 2006년 제2회 영화제에서 첫 수상자를 낸 후 지금까지 姑 신병하 음악감독, 姑 최창권 음악감독, 姑 전정근 음악감독, 姑 정성조 음악감독, 김수철 음악감독, 강근식 음악감독, 조성우 음악감독, 이동준 음악감독, 조영욱 음악감독, 이병우 음악감독 등 총 10명의 영화음악감독에게 수여되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는 개막식을 통해 수상자 특별공연을 가지면서 수상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밖에 현직 영화음악가들에게 영화음악 제작 현장 실무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제천영화음악아카데미'가 영화제 기간 동안 운영된다.

천년고찰 직지사를 품고 있는

김천 여름여행

본격적으로 더위가 몰려오는 소서(小暑)가 하루 지난 7월 8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들과 떠나는 188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7월 테마여행은 천년고찰 직지사가 자리한 김천. 사명대사의 출가득도 사찰로 이름난 직지사와 시와 음악이 실개천을 따라 흐르는 직지문화공원, 그리고 향긋한 포도향으로 가득한 반곡포도마을까지 김천의 여름을 느껴볼 수 있었다.

세 시간을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포도 특구지역인 김천 반곡포도마을. 반곡포도마을은 뛰어난 재배기술력으로 유기농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재

직지사

배가 어려운 무농약 캠벨에서부터 씨없는 거봉, 향이 진한 청포도, 눈으로 보기에도 매혹적인 홍포도까지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 포도의 주산지이다.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마을 주민을 따라 본격적인 포도따기 체험에 나섰다. 향긋한 포도향으로 가득한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 주렁주렁 매달린 홍포도가 회원들을 반긴다. 굵직굵직한 포도송이에 서너 송이만 따도 박스가 가득 찬다. 회원들을 위해 마을에서 특별히 준비한 홍포도와 거봉의 달콤한 그 맛에 폭풍흡입하는 회원들의 입이 즐겁기만 하다.

오후 본격적인 직지사 탐방에 앞서 향긋한 산채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정기회원들이 직지사 입구에 도착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가 반갑게 맞는다. 신라 눌지왕 2년인 418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직지사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선종의 가르침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창건주인 아도화상이 김천의 황악산을 가리키며 저 산 아래에도 절을 지을 길상지지(吉祥之地)가 있다고 하여 이름 부쳐졌다는 설, 그리고 고려의 능여화상이 직지사를 중창할 때 직접 자기 손으로 측지하였기에 부쳐진 이름이라는 설이 전해져온다. 직

포도따기

❶ 백수문학관

❷ 세계도자기박물관

❸ 직지문화공원 전경

지사는 위치적으로는 백두대간 황악산(黃岳山)의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황악산(黃岳山)의 황자가 청(靑), 황(黃), 적(赤), 백(白), 흑(黑)의 5색(色) 중에서도 중앙색을 상징하는 글자라, 직지사는 예로부터 해동(海東)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으뜸가는 가람이라는 뜻에서 '동국제일가람(東國第一伽藍)'이라 불려왔다.

특히 직지사는 조선시대 사명대사가 출가하여 득도한 절로 유명한데 현재 경내에는 대웅전(1735년 중건)을 비롯해 천불이 모셔져 있는 비로전(1661년 창건), 약사전, 극락전, 응진전, 명부전, 사명각(泗溟閣) 등이 남아 있다. 중요문화재로는 국보인 금동6각사리함과 보물인 석조약사불좌상, 대웅전앞 3층석탑 2기, 비로전 앞 3층석탑, 대웅전 삼존불탱화 3폭 등이 있다. 한여름 뜨거운 볕 아래에서도 회원가족들은 해설사의 설명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해서 귀를 귀울인다.

한시간 가량 직지사 탐방을 마친 정기회원들은 직지사 입구에 조성된 직지문화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직지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조성된 직지문화공원은 중앙의 음악조형분수를 중심으로 광장, 대형폭포, 어린이놀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과 국내외 17개국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 50점, 20개의 시비(詩碑),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공원에는 김천 출신의 시조시인인 '백수(白水) 정완영' 선생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수문학관과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진귀한 명품 도자기를 만날 수 있는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이 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세계도자기박물관은 재일교포 2세인 복전영자(福田英字)가 2005년 유럽의 도자기와 크리스탈 작품 1,019점을 기증하면서 만들어졌다. 3곳의 전시실과 영상실을 갖추고 있으며 백자청화모란문호, 청자상감초화문완을 비롯한 한국도자기 30점과 로열크라운더비 병, 크라운화병 등을 포함한 유럽도자기 503점, 랄리크 사자, 무라노 앵무새, 빅토리안 촛대를 포함한 크리스탈 작품 512점 등 총 1,063점에 달하는 도자기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인근에 자리한 백수문학관은 현대 시조의 선구자로 시조의 중흥기를 열었던 한국 시조계의 거봉, 백수 정완영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8년 문을 연 지역 문학관으로, 생존해 있는 시조 시인을 기리는 문학관으로서는 국내 최초이다. 백수문학관에는 정완영 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과 그의 문학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 창작 활동을 펼쳤던 집필실, 자료실, 세미나실, 수장고,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여름 더위를 잊게 하는 대형폭포와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고 있는 중앙 분수대에서 잠시 땀을 식힌 회원가족들은 부산으로의 출발을 위해 주차장으로 서둘러 발길을 옮겼다.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속에 포도향 가득했던 김천 테마여행, 다양했던 볼거리, 체험만큼이나 정기회원 가족들의 여름여행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9월 9일 포도향 가득한 영천 늦여름 여행

영천의 상징 포도와 함께 하는 오감 여행을 시작으로 도계서원, 광릉에서 즐기는 특별한 하루, 영천 늦여름 여행.

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10:00 영천 도착, 포도따기 및 와이너리 체험
11: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2:00 중식
13:00 도계서원, 광릉 등 방문
17:00 부산으로 출발

10월 14일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고령 가얏고마을에서 즐기는 가야금 연주 체험과 우륵박물관, 대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대가야박물관 등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10:00 우륵박물관 탐방
10:30 가얏고마을 가야금 연주체험
12:00 중식
13: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4:00 대가야 박물관 탐방
16:30 부산으로 출발

08월 테마여행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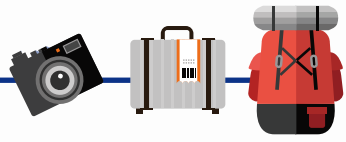
신규 회원

김순덕(기장군 차성로)
김진훈(서구 망양로)
김희정(해운대구 장산로)
박정원(동래구 복천로)
박지현(동래구 온천천로)
이상은(부산진구 백양관문로)
임점호(해운대구 해운대로)
정재욱(중구 중앙대로)
조수연(남구 분포로)
최정윤(남구 수영로)

기존 회원

김경숙(영도구 꿈나무길)
김광열(부산진구 양지로)
김황연(사하구 사하로)
류혜자(해운대구 양운로)
박정숙(수영구 남천동로)
송수빈(남구 동명로)
유이란(남구 우암로)
정은희(금정구 개좌로)
정필문(해운대구 양운로)
최정숙(서구 임시수도기념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607-310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9 10 11 12 1

WEBER • MENDELSSOHN • SCHUBERT • BRAHMS

B'n 비엔그룹 · 대선주조 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2016 웰빙콘서트 III

독일 음악 여행

PROGRAM

베버 오베론 서곡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64
슈베르트 교향곡 제8번 「미완성」 나단조 작품759
브람스 헝가리 무곡 제1번 사단조 & 제10번 바장조

지휘 윤현진

바이올린 김영욱

해설 및 진행 정희정

2016. 8.26 금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협 찬 B'n 비엔그룹 · 대선주조 NH 농협은행
문 의 607-3106 (홍보팀), 607-3144~5 (공연운영팀)
입 장 권 균일 10,000원 (※지정좌석제)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할인 (전화예매시)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20% ▶ 정기회원 (인터넷 예매 가능) / 예술인패스 소지자 / 외국인 / 대학생 및 만24세이하 / 단체 (10명 이상) ※ 학생단체 (3,000원권) ▶ 전화문의

CULTURE LIFE

August 2016
vol.296

INVITATION TO THE ARTS

26 프리뷰 36 리뷰 38 프로그램 가이드 52 새로 나온 음반 53 새로 나온 책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솜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W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Preview

제11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손의 비밀 Secret of Hands

매년 여름 황홀하면서도 놀라운 매직의 세계를 선사해온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2016년 무대가 8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영화의전당에서 펼쳐진다.

8.4(목)-**7**(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중극장, 소극장

문 의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www.hibimf.org

지난 2006년 아시아 최고의 매직페스티벌로 첫발을 내딛은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국내외 유명 매지션들과 아마추어 매지션들이 함께 참여, 매직인구의 저변확대와 국제화를 통해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행사 10주년을 맞은 지난해는 부산이 핀란드 헬싱키를 제치고 2018년 세계마술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세계 마술계에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기도 했다.

올해 부산국제매직페스벌은 '손의 비밀 Secret of Hands'이라는 테마로 새로운 매직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세계적인 마술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부산국제마술경기대회'는 사전 영상물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선발된 국내 17명, 해외 10명의 본선진출자들이 기량을 총동원해 우열을 다툰다. 지난해 처음 열린 '실버마술대회'는 올해 국제대회로 규모를 키우고,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을 통해 마술을 배우는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어린이마술올림픽'을 개최한다.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국내외 최정상 매지션들의 화려한 매직갈라쇼를 관람할 수 있는 '나이트 갈라쇼(Night Gala show)'에서는 2012년 세계마술올림픽 월드 챔피언쉽 스테이지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한국 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유호준, 미국마술협회 회장 맥스 메이븐,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 마술사 루디 코비, 지난해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우승자 지혜준, 도기문 등 세계 최고 마술사의 화려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마술과 타 장르 간의 콜라보 무대를 시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공연들이 선보인다. 스토리텔링 매직쇼 '조선마술사'을 비롯해 매직컬 아트쇼 '박물관이 살아있다', 초청공연 '탑 클래스', 세계적으로 희귀한 흑마술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획공연 '비주얼 매직쇼', 화려한 입담과 위트가 넘치는 '스탠딩토크 매직쇼', 관객의 눈 앞에서 화려한 손기술을 뽐내는 명품 클로즈업 '줌인' 등 다양하게 골라 볼 수가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월드 키즈 매직쇼'는 국내 3개팀, 해외 3개팀의 키즈매직 마술사들이 모여 벌룬, 인형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같은 마법의 세계를 선물한다.

마술의 전통, 뿌리 찾기는 올해도 계속된다. 세계의 전통마술을 발굴, 계승하고 연구하기 위한 '세계전통마술 프로젝트'는 지난해 중국에 이어 일본의 전통마술 문화제 프로그램의 소개와 이해를 돕는다. 또, 현존하는 한국 마술사들과 마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색하는 '한국전통마술 프로젝트', 한국 원로 마술사들이 걸어온 길과 노하우를 알아보는 '원로 마술사 토크쇼'는 올해 처음 관객과 만난다.

이밖에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도 마련되어 있다. 전 세계 마술도구의 전시, 체험, 판매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딜러부스', 인도네시아의 희귀 마술도구와 기존 알려져 있는 마술과 다른 흑마술 위주의 도구를 전시하는 '고대 마법 유물전' 등 다양한 전시를 통해 세계마술의 흐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마술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콘체르토 페스티벌

지휘 이병욱

피아니스트 황성훈

피아니스트 탁영아

피아니스트 송유진

피아니스트 김다솔

전 세계 음악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재독 피아니스트 황성훈을 비롯해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탁영아, 테크닉과 음악성을 두루 갖춘 차세대 피아니스트 송유진, 고전적인 레퍼토리로 유럽을 놀라게 한 피아니스트 김다솔 등 세계를 빛낸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들이 8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대한민국 차세대 지휘자로 주목받고 있는 인제대학교 이병욱 교수가 지휘하는 KNN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의 첫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황성훈으로, 라벨 '피아노협주곡 사장조'를 들려준다. 그동안 Maria Canals 국제콩쿠르, Epinal 국제콩쿠르, Porto 국제콩쿠르, Jaen 국제콩쿠르, Luis Sigall 국제콩쿠르, Senigallia 국제콩쿠르, Taiwan 국제콩쿠르 등 총 41개의 국제콩쿠르에 입상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황성훈은 특히 바로크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방대한 레퍼토리의 소유자로, 모든 장르에 탁월한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줄리어드 심포니와 링컨센터에서 가진 뉴욕 데뷔무대를 통해 '열정, 상상력, 진실함이 어우러진 최상의 조화'라는 호평을 받으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탁영아가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를 들려준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채를 선보이는가 하면 실내악에서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탁영아는 현재 미국 사우스 이스턴대학 피아노 전공 교수이자 Artist-in-Residence, 이스턴대학 피아노 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도 활동중이다.

16세의 나이로 뉴잉글랜드 음악원(NEC) 변화경 교수의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도미, NEC의 예비학교인 Walnut Hill High School을 거쳐 뉴잉글랜드 음악원, 피바디 음악원,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미국 맨하탄 음대에서 수학한 피아니스트 송유진은 각종 국제콩쿠르에 입상하며 연주경험과 기량을 쌓아왔다. 지난해 2010년 10월, 금호아트홀에서 귀국독주회를 가진 후 '큰 스케일과 음악성을 가진 차세대를 이끌어갈 무서운 신예 피아니스트의 등장'이라는 호평과 함께 다양한 음악제에서 '라이징 스타'로 그 실력을 인정받아온 송유진은 이번 무대에서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은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들려주는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 장식한다. 지난 2005년 일본 나고야 국제음악콩쿠르 우승, 통영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위 및 오케스트라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무대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김다솔은 2011년 프랑스 에피날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을 비롯해 2008 슈만 국제음악콩쿠르, 2008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 2010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2011 뮌헨 ARD 국제음악콩쿠르, 2012 스위스 게자 안다 국제 콩쿠르 등 수많은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2011 금호아트홀 라이징 스타 시리즈 독주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국내 음악팬들을 만나기 시작한 김다솔은 2013년에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됐으며 현재 한국과 유럽을 무대로 솔리스트로서 뿐 아니라 실내악 연주자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8.17(수)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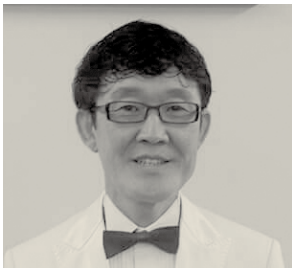
입장료 V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팥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지휘 이정필



노래 이상

재즈가수 위나

재즈가수 백흥선

재즈 피아노 강혜성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날려버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팥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2016년 무대가 8월 1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8.18(목)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05, 3143

매년 국악의 한계를 벗어나 전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팥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는 전 세대가 함께 호흡하는 오늘날의 생활음악, 세계음악을 표방하는 흥겨운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 박성희, 부수석단원 정선희, 방병원, 가수 이상, 오연준, 재즈가수 백흥선, 위나, 재즈피아니스트 강혜성, Koul 밴드의 협연으로 뜨거운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재즈, 팝송으로 시원한 국악여행을 떠난다.

시원하게 첫 무대를 열어줄 곡은 작곡가 이지영의 창작곡 'Brand New'. 역동적이면서도 힘있는 곡으로 끊임없이 도약하고 새로움을 추구하자는 메세지를 담은 곡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가요와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으로 영화 '왕의 남자' OST 중 '인연',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를 현대적인 리듬으로 재편곡한 '신사랑가'를 박성희, 정선희 노래로 들려준다. 애시드 모던 락(Acid Modern Rock) 밴드 'JUDE' 메인보컬이자 동의대학교, 동주대학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부산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외래교수로 있는 가수 이상은 미국의 록밴드 '마룬 5'의 'This love'와 가수 이적의 주옥같은 노래 '하늘을 달리다'를,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교수이자 부산러시아음악연구회 회장으로 있는 재즈가수 백흥선은 영화 '에반게리온' 주제곡으로 유명한 바트 하워드의 유명한 팝 스탠다드곡 'Fly me to the moon', 헝가리 태생의 피아니스트 조셉 코스마가 작곡한 'Autumn Leaves'를 국악관현악 편곡으로 들려준다.

오페라 '포기와 베스'에 등장해 유명해진 곡으로 듀보스 헤이워드의 가사에 조지 거쉬인이 곡을 붙인 '썸머타임'은 이번 무대에서 해금주자 방병원의 해금협주곡으로 만날 수 있다. 이어서는 대동대학교 뉴뮤직과 학과장으로 있는 재즈피아노 강혜성이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스티비 원더가 1976년에 발표한 'isn't she lovley(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색소폰 연주곡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척 리오의 'Tequila'를 들려주며, 올해 초 예능 프로그램 '위키드'에 출연해 '천상이 내린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던 '제주소년' 오연준은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OST 중 'colors of the wind(바람의 빛깔)', 영화 '국가대표' OST 중 '버터플라이'로 부산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그동안 3개의 음반을 출반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재즈가수 위나는 어빙 벌린이 1935년 작곡한 곡으로, 지금까지 많은 재즈가수들의 사랑을 받아온 'cheek to cheek', 영국 웨일즈 출생의 여성싱어 더피가 부른 'Mercy'를 들려주며, 마지막 무대에서는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11인조 밴드 'Koul 밴드'가 출연, 가요 '아름다운 강산'과 인상적인 멜로디라인과 비트로 대표적인 재즈 명곡으로 사랑받는 'Takes Five'를 국악관현악과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6 웰빙콘서트 III '독일 음악 여행'

지휘 윤현진

바이올린 김영욱

해설 정희정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으로 브런치 콘서트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해설이 있는 2016 웰빙콘서트' 세 번째 무대가 8월 2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8.26(금) 오전 11:0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6, 3145

각 나라별 대표 작곡가들의 주옥같은 작품을 통해 그 나라로 음악여행을 떠나는 2016 웰빙콘서트는 이번 무대에서 러시아에 이어 독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독일-한국 현대음악 프로젝트 총감독으로 있으며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무대에서 활동중인 차세대 지휘자 윤현진이 객원지휘하고 '폭발력 있는 연주와 관객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의 소유자'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의 협연, KNN 아나운서 정희정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낭만 오페라를 정립한 '독일 가극의 아버지' 베버를 비롯해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 멘델스존, 브람스, 독일 가곡의 기초를 세운 '가곡의 왕' 슈베르트 등 독일 작곡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양대학교에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한 후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과정, 함부르크 국립음대 지휘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졸업한 지휘자 윤현진은 세계 최고 권위의 프랑스 브장송 국제지휘콩쿠르 제53회 결선무대 진출을 비롯해 2013 포르투갈 리스본 젊은 지휘자 콩쿠르 공동2위, 제3회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Jeunesses Musicales' 국제지휘콩쿠르 대상과 함께 'George Enesc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무대의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 2014년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최 제2회 정명훈 지휘 마스터클래스에서 단원투표 최고점수와 함께 최우수 신진지휘자로 선정된 바 있다.

첫 곡으로 베버의 마지막 오페라이자 동양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오베론 서곡'에 이어 멘델스존의 전 작품 중에서도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 64'를 들려준다. 베토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멘델스존 특유의 품위 있는 낭만적 정서와 균형 잡힌 고전적인 형식, 선율의 아름다움과 화려한 기교의 매력으로 바이올린 협주곡의 꽃이라고 불린다. 협연자 김영욱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뮌헨국립음대 최고과정을 졸업하고 2011년 베오그라드 쥬네스 국제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우승, 2011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3위, 2013년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솔리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노부스 콰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영욱은 2012년 실내악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ARD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현악사중주 부문 준우승을 수상하는가 하면 2014년 대한민국 실내악 역사상 최초로 제11회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대한민국 실내악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부스 콰르텟은 2015년 제9회 대원음악상 신인상에 이어 그 해 실내악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제2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실내악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서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서정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색채와 긴장감으로 탁월한 음악적 완성미를 보이고 있는 슈베르트 교향곡 제8번 '미완성'과 집시음악답게 자유분방한 리듬과 즉흥적 성격을 지닌 멜로디로 출판 당시 큰 인기를 얻었던 피아노 연탄곡 '헝가리무곡'을 브람스 자신이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헝가리무곡' 제1번과 제10번을 들려준다.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6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2014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부산의 여름을 빛내는 열정적인 창작 춤 무대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부산시립무용단 '한 여름밤의 춤 작품전' 2016년 무대가 8월 25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8.25(목)-**26**(금) 오후 7:30,
8.27(토) 오후 4:00, 7: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균일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07, 3154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을 통해 직접 빚어낸 단원들의 참신한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한 여름밤의 춤 작품전'은 특히 올해 예년과 달리 공연기간과 작품 수가 대폭 늘면서 사흘동안 총 7개의 창작춤이 무대에 오른다.

첫날인 8월 25일에는 총 4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오숙례의 '터, 디딤'은 '쉽게 고민하고 또 쉽게 포기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아직 지키고 싶은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작품으로, 그동안 걸어온 길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 만날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을 단원 오숙례, 이현숙, 김시현, 전현우가 춤사위로 표현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수석단원 장래훈의 '꽃집의 아저씨는 멋져요'. 자신이 최고라며 멋을 부리는 꽃집 남자를 등장시켜 '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는 작품으로, 장래훈, 서정연의 2인무로 선보인다.

단원 박미나, 장영진의 공동안무, 출연으로 선보이는 '스며들다'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등장하는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이라는 명대사를 모티브로, 남녀간의 감정을 2인무로 표현한 작품이다. 첫날 마지막 무대는 단원 김미란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장식한다. 안데르센의 동명의 동화를 새롭게 해석한 '벌거벗은 임금님'은 '동화 속 그 옷이 정말 존재하는지, 또 누군가에게 정말로 보였다면 어떨까'는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작품으로, 단원 전혜련, 강모세, 최의옥, 김수잔과 전 부산시립극단 수석단원을 역임한 배우 박찬영이 특별출연한다.

둘째날인 26일에는 첫 작품으로 단원 강모세의 'Odd-Eye(오드아이)'가 무대에 오른다. '홍채의 이상으로 눈동자 색깔이 각각 다른 눈'을 뜻하는 'Odd-Eye' 다른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 노력하는 어리석음 대신 나 그대로의 모습을 찾자는 내용으로, 단원 강모세, 안주희, 김미란, 김주연, 김수잔이 출연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단원 이도윤, 장재훈의 공동안무, 출연으로 선보이는 '스릴러'. 공포물에 등장하는 '좀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스릴러'는 좀비로 변해가는 한 남자의 내면의 분노를 춤사위로 풀어낸다.

마지막 무대는 단원 전현우의 '꿈꾸는 방에서 Ⅱ'로, 현실에서 하고 싶어도 풀지 못하는 상황이나 현상들을 꿈속이라는 매체를 통해 동시대적인 몸의 언어로 풀어낸 작품이다. 꿈 속 여행을 통해 현실에서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단원 전현우와 진완진, 김진관, 이진우의 객원출연으로 매력적인 춤사위로 풀어낸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앞서 25일과 26일 무대에 올랐던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면서 관람의 기회를 놓쳤던 관객들에게 다시한번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Preview

제4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후안 베수비우스

아시아 유일의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8월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8.26(금)-**9.3**(토) 영화의전당, 소향씨어터, 신세계 센텀시티 문화홀, 롯데광복점 문화홀, 경성대 예노소극장, 윤형빈소극장 외

입장료 개막식, 코미디 드림콘서트 균일 4만원
초청작, 참가작 균일 2만원~3만원

문 의 (사)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조직위원회
916-8828, www.bicf.co.kr

올해로 4회를 맞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대급 초호화 라인업은 물론, 매년 4일간 진행됐던 행사 기간을 9일로 파격 연장하면서 더욱 강력해진 웃음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11개국 30개팀이 참가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두 배 이상 길어진 축제기간을 더욱 탄탄하게 책임질 화려한 라인업으로, 마치 개그 어벤져스를 방불케 한다. '개그계의 대부' 이경규를 비롯해 이성미, 김지선, 김효진부터 정경미, 김경아, 김기리 등 개그계의 선후배들이 모여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관객들이 웃음 아래 하나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은 8월 26일 역대 코미디언 출신들의 스타들이 총 출동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간다. 무려 20여년 만에 공개 코미디 무대에 서게 돼 화제를 모은 부산 출신의 스타 이경규의 금의환향 코미디쇼 '이경규쇼'는 1차 티켓 오픈 즉시 1차 판매량을 모두 매진시키는 기염을 토하며 올해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의 최고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대한민국을 주름잡고 있는 개그 히어로들이 총출동하는 '코미디 드림콘서트'는 KBS '개그콘서트', SBS '웃찾사',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활약 중인 개그팀과 정종철이 활약하고 있는 비트박스팀 '비트파이터'를 비롯해 국내 참가팀과 해외 참가팀이 참여한다.

이밖에도 제1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국내 퍼포먼스 대상인 '부산바다상' 수상에 빛나는 '옹알스', 마술부터 몸개그, 애드립까지 어우러진 박성호, 김원효, 김재욱, 정범균, 이종훈의 '쇼그맨' 등 콩트부터 넌버벌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국내외 코미디의 향연이 이어지며, 지난해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서 축제 역사상 최초로 전 회차를 매진시키는 기록으로 '열바다상'을 수상한 김기리, 서태훈, 류근지, 김성원의 '이리오쇼', 관객과 배우가 하나 되어 욕하는 신개념 욕쇼 '변기수의 뉴욕쇼'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축제를 빛낸다. 또 연예계 대표 주부이자 최고의 개그우먼 3인방 이성미, 김지선, 김효진이 만드는 속 시원한 토크쇼 '사이다 토크쇼'와 정경미, 김경아가 세상의 엄마들에게 전하는 공감 코미디 토크쇼 '투맘쇼'는 우먼파워로 똘똘 뭉친 여성 예능인들이 여성 관객을 타깃으로 올해 신설된 공연이다. 이 외에도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성인을 위한 개그쇼 '코미디스타', 한국무용을 모티브로 한 코미디 퍼포먼스쇼 '명월', 비행기 추락 후 벌어지는 세 남자와 한 여자의 좌충우돌 탈출기를 담은 코미디 연극 '배꼽'이 관객들의 웃음을 책임진다.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하면 빠질 수 없는 해외팀도 올해 시선을 끈다. 교묘한 동작으로 옷을 입고 있음에도 안 입은 것 같은 이색 코미디를 선보이는 일본의 야스무라, 칼립소 뮤직 리듬에 맞춰 폭발적인 웃음을 선사하는 후안 베수비우스의 '칼립소 나이트', 마임과 비트박스를 활용한 넌버벌 퍼포먼스쇼 트리그비 워켄쇼의 '더 베스트 오브 트리그비 워켄쇼', 제시카 아르핀의 아크로바틱 사이클 공연 '카라바지' 등 다양한 장르로 색다른 웃음의 세계로 안내한다.

Preview

2016 제3회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2016 3rd Busan Chamber Music Festival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축제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14년 첫 선을 보인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2016년 무대가 9월 8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지휘자 금난새가 음악감독을 맡아 매년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어온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은 초가을 문턱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실내악의 향연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실내악팀, 연주자들이 참여해 축제가 펼쳐지는 사흘동안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떠오르는 스웨덴 출신의 바이올린, 기타 듀오 '듀오 케미(Duo KeMi)'를 비롯해 2012년 하노버 국제콩무르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트리오 제이드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이정란, 피아니스트 이효주가 그들만의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인다.

기타리스트 Jacob Kellermann과 바이올리니스트 Daniel Migdal으로 구성된 '듀오 케미'는 스웨덴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파워풀한 연주와 폭넓은 레퍼토리로 비평가들 뿐 아니라 관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듀오명인 '케미(KeMi)'는 그들의 성 앞자리 두 자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바이올린과 기타의 이색적인 앙상블을 그들만의 스타일로 연주하며, 다른 악기와의 앙상블을 위한 새로운 레퍼토리를 끊임없이 선보이고 있다. 2010년 17개국 20개의 챔버뮤직 앙상블이 참여한 독일의 'Internationalen Wettbewerb fur Kammermusik mit Gitarre' 컴피티션에서 우승한 다재 다능한 이 젊은 듀오는 2009년 스웨덴의 젊은 챔버 뮤직 앙상블을 위한 포럼인 'Young and Promising'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2011년 스웨덴에서 열린 유럽피안 'ESTA' 컨퍼런스 피날레 음악회의 연주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5년 루체른 페스티벌 리사이틀을 전석 매진시키며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는 이미 2012년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하노버 요아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 및 최고의 파가니니 카프리스 특별상을 수상하여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린 김다미는 2011년 일본 나고야 무네츠구 국제 콩쿠르 우승 및 오케스트라 단원 선정 특별상, 무네츠구 선정 특별상 수상, 2012년 세계 최고 명성의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그 해 10월 하노버 국제 콩쿠르 우승 부상으로 낙소스 레코드사와의 음반계약과 명기 과다니니를 대여 받았으며 2014년에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에서 순위입상과 함께 '최고 베토벤 소나타상, 최고 모차르트 협주곡상'을 수상해 또 한번 그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후 유럽과 세계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다미는 실내악에도 깊은 애정을 보이면서 미국 라비니아 페스티벌과 옐로우반 페스티벌, 독일 크론베르크 실내악 축제 등에 참가하며 기돈 크레머, 스티븐 이설리스, 크리스티안 테슬라프, 프란스 헬머슨, 슐로모 민츠, 도날드 와일러스타인, 이타마르 골란 등 여러 저명한 연주가들과도 지속적으로 실내악 콜라보레이션 연주를 해오고 있다.

지난 2004년 '월간 피아노음악(음연)'으로부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미래'로 지목된 피아니스트 이효주는 미국 신시내티 국제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모스크바 국제 청소년 쇼팽 피아노 콩쿠르 우승과 아시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그랑프리 수상, 상하이 국제 콩쿠르 입상 및 프랑스 피아노 캠퍼스 국제콩쿠르 우승 및 청중상 수상, 그리고 에피날 국제콩쿠르 2위 등 주요 국제콩쿠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 가장 저명한 국제피아노콩쿠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제네바 국제콩쿠르에서 준우승 및 청중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한국 차세대 피아니스트로서의 면모를 세계무대에 확인시킨 이효주는 2013년 아트실비아 실내악 오디션에 첼리스트 이정란,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과 함께 '트리오 제이드'로 참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트리오 제이드'는 2015년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열린 제9회 슈베르트 국제실내악콩쿠르에서 한국팀 최초로 1위 없는 3위를 수상하며 우리 실내악계의 위상을 세계무대에 드높였으며 그 해 10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트론하임 국제실내악콩쿠르에서도 3위에 입상하기도 했다.

피아니스트 이효주와 함께 '트리오 제이드'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이정란은 화려한 기

지휘 금난새

듀오 케미

바이올린 김다미

첼로 이정란

피아노 이효주

9.8(목)-**9**(금) 오후 7:30,
9.10(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9.9(금) 오후 2:00 부산시립미술관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교와 시적이고 감각적인 서정성이 돋보이는 연주로, 차세대 가장 주목할 만한 첼리스트로 사랑받고 있다. 지난 2000년 독일의 파블로 카잘스 콩쿠르에서 로스트로포비치 파운데이션 특별상인 최고 유망연주가상을 시작으로, 2003년 폴란드의 루토슬라브스키 콩쿠르에서 특별상, 이듬해 스페인에서 열린 클라렛모구에르 콩쿠르, 프랑스 모리스 장드롱 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했으며, 2006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는 영예의 1위와 현대음악특별상을, 2007년에는 한국음악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이밖에도 올해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일부 단원,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Camerata BS가 출연,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9월 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2016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의 첫 무대는 '듀오 케미(Duo KeMi)'와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첼리스트 이정란, 피아니스트 이효주의 독주, 이중주, 삼중주 무대로 꾸며진다. 듀오 케미의 기타리스트 Jacob Kellermann이 들려주는 빌라로보스의 'Choros 제1번'을 시작으로 듀오 케미가 연주하는 피아졸라 '탱고의 역사', 김다미, 이효주의 비탈리 '샤콘느', 김다미, 이효주, 이정란의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라단조 제1번 작품 49'를 감상할 수 있다.

다음날인 9일에는 듀오 케미의 무대 외에도 두 멤버 각각 Camerata BS와 앙상블 무대를 펼친다.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이날 무대에서는 Daniel Migdal이 스벤센의 '로망스'를, Jacob Kellermann이 비발디 '기타 협주곡 라장조'과 로드리고 '아랑훼즈 협주곡'을 Camerata BS와 함께 들려준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듀오 케미'의 독주 및 앙상블 무대가 펼쳐지면서 부산시립미술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선물을 선사한다.

마지막날인 1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피아니스트 이효주, 정다슬, 플루티스트 서선미리, 클라리네티스트 백양지, Camerata BS, 그리고 듀오 케미 등 올해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에 참석한 모든 연주자들이 출연, 사흘간의 특별한 음악여행을 마무리한다.

상하이 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6 제7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롬나드 Promenade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첫 선을 보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2016년 무대가 8월 28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마루'는 '파도가 일 때 치솟은 물결의 꼭대기, 산 위의 정상'이라는 뜻을 지닌 순수한 우리말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를 지향하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8월 28일(일)–9월 3일(토)

부산문화회관, 국립부산국악원, 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사상다누림홀, 해운대문화회관, 부산시민공원 및 부산시내 일원

균일 1만원

개 · 폐막공연 및 해운대문화회관 공연 VIP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전야제, 사상다누림홀, 드림프로젝트는 무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올해 부산국제마루음악제의 주제는 '프롬나드 Promenade'. '산책로'를 뜻하는 프롬나드처럼 청중이 부담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클래식 음악축제로 꾸며지며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캐나다 오포드 오케스트라를 비롯 20여 개국 500여 명의 연주자들이 참여해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본격적인 음악제에 앞서 8월 27일 부산시민공원 야외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이끄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추억의 세계음악여행'을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올해 개막연주는 현재 중국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무대로 마련된다. 8월 2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콘서트에서는 지휘자 장량이 이끄는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파가니니 바이올린 국제콩쿠르 우승자이자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멩라 황(Mengla Huang), 북미에서 활동 중인 혼 콰르텟 '더 포 혼즈맨 오브 디 아포카립스'가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다음날인 8월 29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한차례 더 공연을 갖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비브라폰 연주자이며 작곡자인 앤더스 아스트란드(Anders Astrand)와 캐나다 오포드센터 예술감독이자 젊은 피아니스트인 워니 송(Wonny Song)이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앤더스 아스트란드는 다양한 대상을 악기로 삼아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북유럽 최고의 말렛(펠트, 코르크, 가죽 등으로 끝을 댄 금속이나 나무 봉으로 악기를 두드리는 데 사용) 스페셜리스트로, 특별히 이번 무대에서는 2016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위해 직접 작곡한 '비브라폰과 마림바를 위한 콘체르토 봄의 춤'을 세계 초연으로 들려준다.

8월 30일에는 한국음악의 전통성과 특수성을 살리고 다채로운 전통공연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이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국악오케스트라와 여러 장르의 동서양 악기가 어우러지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선사한다. 8

앤더스 아스트란드

멩라 황

오포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월 31일은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로,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클래식 놀이터'가 펼쳐진다. 텐진 심포니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인 위에 장(Yue Zhang)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교수로 있는 안나 쉘루드코(Anna Sheludko)가 어린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곡인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 등을 들려준다.

9월 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국내외 우수 연주자 발굴과 문화적 교류를 위한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 콘서트(Concerto competition Gala Concert)'가 펼쳐진다. 지난 5월 21일 예선을 거쳐 선정된 한국,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헝가리,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의 차세대 유망 연주자 10명이 오스트리아 대사로부터 모차르트 훈장을 수여받은 지휘자 호세 플로레스(Jose Flores)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또, 9월 2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는 2012 오푸스 올해의 예술감독상 수상자인 장 프랑수아 리베스트가 이끄는 캐나다 오포드 오케스트라(Orford Orchestra)가 유카탄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인 데이빗 카필라(David Capilla), 이작 펄만과의 연주로 뉴욕타임즈로부터 극찬을 받은 비올리스트인 앤디 린(Andy Lin)과 듀오협연을 펼친다.

8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폐막콘서트는 9월 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캐나다 오포드 오케스트라가 지휘자 장 프랑수아 리베스트 지휘, 줄리어드 출신의 벡슈타인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지에 위엔(Jie Yuan),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출신의 세계 정상의 바수니스트 브람 반 삼빅(Bram van Sambeek)의 협연으로 화려했던 축제의 막을 내린다.

이번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7일간의 메인콘서트 외에도 해외 초청연주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앙상블 무대가 펼쳐진다. 트럼펫 마르코 그라시아, 살바도르 이바네즈, 트럼본 에밀리오 알메나르, 호른 다비드 쿠엔카, 튜바 조나단 세비야로 구성된 '알-안달루스 브라스 퀀텟(Al-Andalus Brass Quintet)', 오드리 굳, 폴 블랙스톤, 브라이언 브라운, 제랄드 우드로 구성된 혼 콰르텟 '더 포 혼즈맨 오브 디 아포카립스', 테너 템비 엔코지, 소프라노 마뉴엘라 비에이라 등이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를 선사하는 앙상블 시리즈는 8월 31일 사상다누림홀과 9월 1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부산지역 음악 영재들과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 라이징 스타, 부산연주자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부산음악인 시리즈'는 음악제가 열리기 앞서 8월 22일과 23일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는 8월 2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청소년을 위한 '스쿨클래식'은 8월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작곡가 사이먼 플로린, 피아니스트 안나 쉘루드코, 바수니스트 브람 반 삼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펼쳐진다.

이밖에 부산지역 내 학교를 찾아가는 아웃리치 콘서트와 음악제 기간 중 송상현 광장 및 시내 일원에서 펼쳐지는 프롬나드 콘서트는 2016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주제인 '청중들이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연주'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연주자 멩라 황, 웨이 양, 앤디 린, 데이빗 카필라, 지에 위에, 라틴 재즈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들이 콘서트홀이 아닌 관객들을 직접 찾아 수준높은 음악선물을 선사한다.

Review

한국창작무용의 동시대적인 쇄신과 도약을 향하여

부산시립무용단 제74회 정기공연 '업경대'

심정민 한국춤평론가회 회장

1973년 창단 이래로 부산 춤을 대표해온 부산시립무용단이 올 봄 새로운 예술감독으로 김용철을 맞이하였다. 김용철은 한국무용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춤 스타일을 끌어당기는 창작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부산시립무용단은 현 시대와의 소통을 보다 면밀히 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된 것이다.

김용철 예술감독의 부산시립무용단에서의 첫 번째 대작 '업경대'는 7월 14일–1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졌다. '지옥에 있는 염라대왕이 인간의 죄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는 뜻의 '업경대'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염라대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불교적인 소재를 현대적인 감각이 농후한 한국창작무용으로 완성되었다.
총 네 개의 장 '거울이 부르는 노래, 영혼의 습지, 욕망의 무게, 지워진 자를 위한 난장'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기승전결의 이야기 구조를 갖추기보다는 매 장마다 춤을 통한 일련의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의 창작 춤이 설명보다는 느낌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수월할 것이다.
주요 등장인물로는 망자(亡者)와 영혼(靈魂) 그리고 사신(死神)이 있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49일간의 생사관을 치루는 망자는 집착과 갈등으로 인한 번뇌로 동요한다. 그의 영혼은 이러한 번뇌로부터 초연하여 죽음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또 온몸으로 표현하기까지 한다. 가장 매력적인 역할로는 사신을 꼽을 수 있다. 한없이 어둡고 무서울 것이라는 사신의 형상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때론 인간으로 하여금 죄업을 되돌아보게 하고 때론 모든 것을 초월하여 평안과 회귀로 이끄는 매개자로 활약한다. 사신은 결국 인간이란 삶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는 통과의례를 거쳐 사후세계에 안착하게 된다는 제의적 관념을 심어놓는 존재인 것이다. 망자 역의 이광석, 영혼 역의 강모세, 사신 역의 장래훈은 작품에 관념적인 깊이를 더하는 중심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해냈다.

사실 '업경대'는 2010년 초연 이후 여러 차례 재현된 김용철의 대표작이지만 이번 부산시립무용단 버전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60명 이상의 무용수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맞춰 움직이는 모양새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다. 특히 종장에 이르러 전 출연진이 무대를 가득 채워 크게 선회하는 모습은 하나의 거대한 기류마저 연상시킨다. 번뇌를 딛고 평안과 회귀로 나아간 후 펼쳐지는 피날레는 '업경대'의 트레이드마크나 마찬가지이다. 흰 옷으로 단장한 무용수들이 긴 대의 하얀 우산을 들고 행렬하듯 움직이는 장면인데, 인간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고 초월하여 마침내 마음의 평안과 본연의 회귀로 나아감을 표현하는 관념적인 의식과도 같은 마무리인 것이다.
김용철은 '업경대'에서 전통적인 춤사위에 근거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한 한국창작무용으로서 불교적인 제의를 표현하였다. 이는 춤 그 자체 뿐 아니라 음악, 조명, 의상, 소품의 세련되고 총체적인 의식 표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감각의 한국창작무용을 탐구해온 김용철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역사와 명성을 자랑해온 부산시립무용단에게 한 가지 아쉬움이라 한다면, 무용계 중앙으로까지 깊은 인상과 파장을 불어 일으킬 만한 신선한 창작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동시대적인(contemporary) 한국창작무용으로 입지를 다져온 김용철 예술감독으로 인해 이와 같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시립무용단이 동시대적인 쇄신과 도약을 이어가길 바란다.

Review

‘수상한 …’ 전성시대

부산시립극단 제56회 정기공연 ‘그 가족이 수상하다’

허 은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2010년 한국영화 ‘수상한 이웃들’이, 2014년에는 심은경 주연의 영화 ‘수상한 그녀’, 2009년에는 미국영화 ‘수상한 가족’, 2012년에는 TV 드라마 ‘수상한 가족’이 상영되었다.

2014년에는 줄리어 도널드슨의 청소년 소설 ‘수상한 가족의 조건’이 서점가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2016년(7월 12일~16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는 연극 ‘그 가족이 수상하다’가 공연되었다. 이 중에서 영화 ‘수상한 그녀’를 제외하면 모두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인간애 결핍의 시대에서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게 한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붕괴와 해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갖가지 사회 문제를 다룬다. 가족의 문제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까다로운 문제 중의 하나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은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작가들은 ‘수상한 가족’에 관심을 가진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그 분화와 해체, 그리고 갈등을 보여주지만 궁극에는 치유되어 끝을 맺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결말을 보여준다.

‘그 가족이 수상하다’ 역시 세부 틀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기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유사성, 상투적 진행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표현의 독창성은 분명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작가로서의 연출 혹은 감독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연출이 희곡의 재현자이며 동시에 재해석자이기 때문이며 연출과 관련된 연기, 무대 장치, 조명 음향 등의 다양한 요소들 역시 ‘연출’의 의도가 투영된 결과물이 된다. 연출, 작가의 시각, 재해석이라는 단어는 창조 지향의 연출에게 있어서 악몽과 같은 것이며 그를 항상 억누르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다. 젊은 연출가일수록 상태는 더 심하다.

부산시립극단과 부산 연극계의 원로인 전승환 선생이 객원 연출로 만나 공연한 연극 ‘그 가족이 수상하다(김태수 작)’은 그러한 악몽과 강박관념에서 벗어난 작품이다. ‘예술로서의 연극’이라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공연장에 가거나 살아있는 무대라는 특수 조건 속에서의 ‘연극’을 기대하면 실망은 커진다. ‘연극만이 가지는 매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고개가 자꾸만 갸웃거리게 된다. 이 작품은 현대연극의 다양한 표현기법, 충격적 형식미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데 극이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극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보통의 관객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진실 앞에 선 연출의 긴 호흡과 함께 하며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형식면에 있어서 무대 문법이 다소 혼란스럽긴 하지만 특별함이 없는 가운데 흐르는 강물처럼 ‘나’와 ‘우리’를 엮어가는 힘은 연출이 긴 시간 동안 체득한 삶의 깊이 속에서 얻어진 것이다. 또한, 부산시립극단의 올해 특별 프로젝트인 ‘부산연극 역사의 힘Ⅱ’을 통해서 오늘의 관객과 소통하려는 시도와 잘 어우러지는 작품임은 틀림없다. 그런데도 타 예술과의 변별성을 지니는 것이 연극의 생명이라는 일반적인 주장을 대입한다면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극 진행의 시간적 흐름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없었던 점은 조명이나 적절한 음향, 그리고 연기자들의 성격 구축의 정밀함 부족에서 출발한다. 시간의 변화와 그 흐름에 대한 인식과 표현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해결지점으로 가는 중요한 사항이 된다.

사건의 해결이 문제를 푸는 단순한 퀴즈 같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러하듯이 가장인 아버지(엄대장)의 참음의 오랜 순리적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외면과 내면이 다른 인종(忍從)자로서의 성격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되었더라면 훨씬 깊이 있는 울림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상상할 수 있도록 예고된 연기자들의 평면적 성격 구축은 낯익은 TV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였다. 부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가득 채운 보기 드물게 다양한 관객층이 끝까지 연극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는 또 다른 즐거움을 맛보았다.

Piano In & 이혜경 교수와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일 시 | 8월 4일–5일 목–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Piano In 031–670–3305

중앙대학교 이혜경 교수와 그의 제자들로 결성된 연주동인 'Piano In'과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4일 Piano In 여름음악회

지난 2008년 창단 이후 매년 2차례 정기연주회와 'Fun of 20th Century', '드뷔시 탄생 150주년 앙상블의 밤', 'Sout of Asia', '달려라 피아노–에튜드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무대를 가져온 Piano In 여름음악회.
중앙대학교 2학년 이현수, 정세은, 정수민, 3학년 엄의철, 4학년 한의현, 김종환이 출연, 청소년들을 위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하이든/피아노 소나타 제38번
리스트/스페인 랩소디
쇼팽/폴로네이즈 환상곡
프로코피에프/토카타
라벨/라 발스
브람스/피아노 소나타 제1번

5일 이혜경 피아노 독주회

바흐에서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와 풍부한 소리, 깊이 있는 해석으로 사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혜경 독주회.
독일 에센 폴크방음대와 뮌헨국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재학시절 폴크방음대 콩쿠르와 독일음악대학 연합콩쿠르 입상, 포르투갈 비안나 다 모타 국제콩쿠르에서 바흐상을 수상한 이혜경은 1984년 귀국독주회로 한국음악팬클럽이 수여하는 '이달의 음악가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음악동아 선정 '올해의 음악가상', 한국음악협회 선정 '한국음악상', 한국음악비평가협회 선정 '서울음악상'을 수상했다.
루이지애나 국제피아노콩쿠르 심사위원, 독일 자브뤼켄음대 교환교수를 역임한 이혜경은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이자 C.A.U 카메라타 멤버, Piano In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프랑스 모음곡 제5번
쇼팽/발라드 제3번, 4번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Kv.333
라벨/모음곡 '거울' 중 슬픈 새들, 대양 위의 조각배, 어릿광대의 노래(2단으로 편집)

건반에 비친 물의 신비

노경원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8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15인 이상 단체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핀아컴퍼니 070–4025–1556

문화예술교육 융합 컨텐츠 기업인 핀아컴퍼니가 주최하는 2016 국제 문화예술교육 융합 페스티벌 '물과 예술'의 일환으로 열리는 노경원 피아노 독주회 '건반에 비친 물의 신비'.
페스티벌의 오프닝 콘서트를 겸한 이번 무대는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노경원이 유희(라벨 '물의 희롱', 리스트 '샘가에서', 베리오 '물의 피아노'), 정화(슈베르트–리스트 '물위의 노래', 리스트 '에스테장의 분수'), 변신(드뷔시 '춤추는 눈송이', '비오는 정원'), 전설(드뷔시 '물의 요정', 리스트 '물위를 걷는 파올라의 성 프란체스코')이라는 4가지 테마로 물을 소재로 작곡된 피아노 독주곡들을 해설과 영상으로 들려준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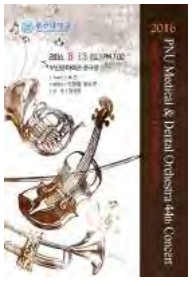
웅산의 Fun Fun Fun Jazz

일 시 | 8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아시아를 대표하는 매력적인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 마련하는 'Fun Fun Fun Jazz'.
수려한 외모와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로 객석을 압도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은 뛰어난 곡 해석력으로 섬세한 발라드에서부터 강한 비트의 노래까지 모든 장르를 그가 가진 특유의 감성과 따뜻한 음색, 혼이 담겨 있는 독특한 목소리로 감동을 선사해왔다.
'재즈는 어렵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깨고 대중들도 쉽게 재즈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누가 들어도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즈 레퍼토리를 들려줄 이번 무대에서는 웅산과 함께 박철우(드럼), 황호규(베이스), 민경인(피아노), 박경호(기타), 이인관(색소폰) 등 한국 최고의 재즈 뮤지션들로 구성된 웅산밴드가 출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2016 제44회 부산대학교 의·치대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13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대학교 의·치대 관현악단
010–4102–5648



부산대학교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된 부산대학교 의·치대 관현악단의 44번째 정기연주회.
1973년 9월 열정적인 의대생들이 모여서 '부산챔버오케스트라'로 출발, 44년의 역사를 이어온 부산의치대관현악단은 힘든 학업과 음악을 병행하면서 단순한 취미활동에 그치지 않고 동료 선후배들 간의 교류의 장이자 대중과의 소통의 창구로 음악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백조의 호수' 중 '정경'
브루흐/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 26
드보르작/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등
• 지휘/박진 • 악장/김성준
• 협연/안형렬(첼로), 황유경(바이올린)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콘체르토 페스티벌

일 시 | 8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세계를 빛낸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들이 한 무대에 서는 '콘체르토 페스티벌'.
전 세계 음악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재독 피아니스트 황성훈을 비롯해 미국을 중심으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탁영아, 테크닉과 음악성을 갖춘 차세대 피아니스트 송유진, 고전적인 레퍼토리로 유럽을 놀라게 했던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대한민국 차세대 지휘자로 주목받고 있는 인제대학교 이병욱 교수가 지휘하는 KNN 방송교향악단과 아름다운 앙상블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라벨/피아노협주곡 사장조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
리스트/피아노협주곡 제1번
차이코프스키/피아노협주곡 제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팥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일 시 | 8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05,3143

한 여름 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날려버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팥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매년 국악의 한계를 벗어나 전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팥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는 전 세대가 함께 호흡하는 오늘날의 생활음악, 세계음악을 표방하는 흥겨운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 박성희, 부수석단원 정선희, 방병원, 가수 이상, '제주소년' 오연준, 재즈가수 백흥선, 위나, 재즈피아니스트 강혜성, Koul 밴드의 협연으로 뜨거운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재즈, 팝송으로 시원한 국악여행을 떠난다.

꿈꾸는 靑春歌樂(청춘가악)

일 시 | 8월 21일 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신채영 010-3955-4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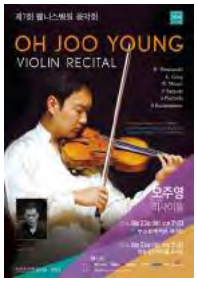
전문 연주자에서부터 국악수업을 받고 있는 전공자들까지 국악계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꿈꾸는 청춘가악'.
판소리에서부터 가사, 대금산조, 가야금병창, 창작국악곡까지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서용석류 대금산조 제주, 단가 중 '사철가', 판소리 '심청가',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대금독주곡 '염양춘' 계면두거, 하늘, 바람, 별 그리고 흡(변재벽 곡), Flying dream(한충은 곡, 조한듬 편곡)
- 대금/신희재(중요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이수자,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단원), 김소연, 차나래, 이윤화, 염혜원, 신채영, 박서진, 김수진
- 판소리/박지영(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적벽가 이수자), 이소윤
- 가야금병창/신수아 • 신디사이저/변재벽, 조한듬
- 장단/박재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제7회 웰니스병원 음악회

오주영 리사이틀

일 시 | 8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화 예매시 1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세계적인 지휘자 주빈 메타로부터 '놀라운 재능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찬사를 받으며 현재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독주회.
뉴욕 카네기홀 데뷔 독주회를 통해 뉴욕 콘서트 리뷰지로부터 '천재적인 재능뿐 아니라 진정한 거장으로서의 음악적 감수성을 지닌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호평을 받은 오주영은 그동안 링컨센터 엘리스툴리홀, 워싱턴 케네디센터, 로스안젤레스 월트디즈니홀, 뮤직센터, 런던 위그모어홀, 도쿄 오페라시티콘서트홀, 키오이홀, 프라하 드보르자크홀, 상트페테르부르그 그랜드홀 등 유명 홀에서 연주한 바 있다.
오주영은 현재 뉴욕필하모닉 종신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 피아노/카를로스 아빌라

제1182회 MBC목요음악회

해피앙상블 드라마 콘서트 '응답하라 학창시절'

일 시 | 8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

1970~80년대 그 시절 추억의 노래를 통해 유쾌한 합창음악을 선사하는 해피앙상블의 이색 드라마 콘서트 '응답하라 학창시절'로 마련되는 제1182회 MBC목요음악회.
최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향수 속에 가족과 이웃의 정을 담으면서 '응답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TV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응답하라 학창시절'은 아련한 추억 속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그 시절 음악으로 버무려내면서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함께 선사한다.
- 테너1/이홍길, 황성학, 신대현
- 테너2/조동훈, 우원석
- 바리톤/고정현, 김대성, 장진웅
- 베이스/김정대, 안세범
- 피아노/안선애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6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일 시 | 8월 25일-26일 목-금요일 오후 7:30, 27일 토요일 오후 4:00, 7: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07, 3154

부산의 여름을 빛내는 열정적인 창작 춤 무대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부산시립무용단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2016년 무대.
8월 25일(목) 오후 7:30
터, 디딤(안무/오숙례, 출연/오숙례, 이현숙, 김시현, 전현우)
꽃집의 아저씨는 멋져요(안무/장래훈, 출연/장래훈, 서정연)
스며들다(안무, 출연/박미나, 장영진)
벌거벗은 임금님(안무/김미란, 출연/박찬영, 전혜련, 강모세, 최의옥, 김수잔)
8월 26일(금) 오후 7:30
Odd-Eye(안무/강모세, 출연/강모세, 안주희, 김미란, 김주연, 김수잔)
스릴러(안무, 출연/이도윤, 장재훈)
꿈꾸는 방에서 II(안무/전현우, 출연/전현우, 진완진, 김진관, 이진우)
8월 27일(토) 16:00, 19:00
25일, 26일 출연팀

2016 테너 오동주의 Story Concert

일 시 | 8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오동주 010-4556-5058

관객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온 테너 오동주의 Story Concert 2016년 무대.
경성대학교와 이탈리아 루이자 단눈치오 국립음악원, 이탈리아 페스카라 국립아카데미 오페라 연기과를 졸업한 오동주는 목련합창단 지휘자,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B-STAr) 지휘자, 남성성악앙상블 4+1, 이태리음악연구회 회원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6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사계(四季, Four Season)'라는 주제로 이탈리아 칸초네, 토스티 가곡, 러시아 로망스, 한국가곡 등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6 웰빙콘서트 Ⅲ 독일 음악 여행

일 시 | 8월 26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6, 3145

•••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으로 브런치 콘서트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해설이 있는 2016 웰빙콘서트' 세 번째 무대 '독일 음악 여행'. 독일-한국 현대음악 프로젝트 총감독으로 있으며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무대에서 활동 중인 차세대 지휘자 윤현진이 객원지휘하고 '폭발력 있는 연주와 관객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의 소유자'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의 협연, KNN 아나운서 정희정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낭만 오페라를 정립한 '독일 가곡의 아버지' 베버를 비롯해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 멘델스존, 브람스, 독일 가곡의 기초를 세운 '가곡의 왕' 슈베르트 등 독일 작곡가들의 주옥같은 작품을 통해 독일 음악여행을 떠난다.

제22회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 010-9875-0700

•••

지난 1998년 YMCA 청소년오케스트라로 창단한 후 2012년 부산예술회관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특별연주회,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난 2011년, 2012년 정기연주회에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자 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희사했으며 매달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전해주는 등 음악을 통한 사랑나눔에 앞장서오고 있다.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 협연/백지윤(플루트), 박시현(바이올린)

2016 제7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롬나드 Promenade

일 시 | 8월 28일(일)-9월 3일(토) 부산문화회관, 국립부산국악원, 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사상다누림홀, 해운대문화회관, 부산시민공원 및 부산시내 일원
입장료 | 균일 1만원(개·폐막공연 및 해운대문화회관 공연 VIP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전야제, 사상다누림홀, 드림프로젝트, 청소년을 위한 스쿨클래식은 무료)
문 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첫 선을 보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2016년 무대.

부산음악인시리즈
8월 22일(월)-23일(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지역 음악 영재들과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 라이징 스타, 부산연주자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부산음악인시리즈 무대.

전야제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추억의 세계음악여행'
8월 27일(토) 오후 부산시민공원 야외무대
• 지휘/이정필(수석지휘자)

메인콘서트 I _Opening Concert
8월 28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현재 중국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파가니니 바이올린 국제콩쿠르 우승자로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멩라 황(Mengla Huang), 북미에서 활동 중인 오드리 굳, 브라이언 브라운, 제랄드 우드, 폴 블랙스톤으로 구성된 혼 콰르텟 '더 포 혼즈맨 오브 디 아포카립스'와 함께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장량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
8월 28일(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학생 오케스트라를 대상으로 음악으로 소통하고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는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 무대.

메인콘서트 II
8월 29일(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왕성한 활동으로 퍼커션 음악 확장에 앞장서고 있는 북유럽 최고의 말렛 스페셜리스트 앤더스 아스트란드, 캐나다의 오포드 센터의 예술감독이자 젊은 피아니스트 워니 송의 무대가 펼쳐진다.

청소년을 위한 스쿨클래식
8월 30일(화)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작곡가 사이먼 플로린, 피아니스트 안나 쉘루드코, 바수니스트 브람 반 삼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펼쳐지는 청소년을 위한 스쿨클래식.

메인콘서트 III
8월 30(화)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악오케스트라와 여러 장르의 동서양 악기가 어우러지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선사하는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의 무대.
• 지휘/권성택

메인콘서트 IV '어린이들을 위한 클래식 놀이터'
8월 31일(수)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텐진 심포니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위에 장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안나 쉘루드코와 함께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회.

앙상블 시리즈
8월 31일(수) 오후 사상다누림홀
9월 1일(목) 오후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해외 초청연주자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

메인콘서트 V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 콘서트'
9월 1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5월 21일 예선을 거쳐 선정된 한국,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헝가리,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의 차세대 유망 연주자 10명이 지휘자 호세 플로레스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는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 콘서트.

메인콘서트 VI
9월 2일(금)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2012 오푸스 올해의 예술감독상 수상자인 장 프랑수아 리베스트가 이끄는 캐나다 오포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유카탄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인 데이빗 카필라, 이작 펄만과의 연주로 뉴욕타임즈로부터 극찬을 받은 비올리스트인 앤디 린의 듀오무대가 펼쳐진다.

메인콘서트 VI '폐막콘서트'
9월 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캐나다 오포드 오케스트라와 벡슈타인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지에 위엔,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출신의 세계 정상의 바수니스트 브람 반 삼빅의 협연으로 화려했던 축제의 막을 내린다.
• 지휘/장 프랑수아 리베스트

핀아국제앙상블 '물의 소리'

일 시 | 8월 28일 일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15인 이상 단체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핀아컴퍼니 070-4025-1556

•••

핀아컴퍼니 소속 단체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준전문가로 이루어진 핀아국제앙상블이 경남 10개 도시 순회 공연을 마치고 마련하는 부산무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융합, 창조적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재능기부 등 자선활동을 가져온 핀아국제앙상블은 '물의 소리'라는 테마로 곡의 이해를 도와줄 영상과 평소 접하기 힘든 래인스틱, 워터클라스, 윈드 차임벨 등 사운드&리듬악기에 댄스, 문학 등이 융합되어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

- 피아노/박선하, 박소연, 오병강, 엄희정
- 바이올린/고아라, 임채진
- 첼로/윤지원

(사)한국발레협회 부산·경남지회 창단공연

일 시 | 9월 3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사)한국발레협회 부산·경남지회
070-8883-8004, 010-3078-0545

•••

발레의 창작활동 육성 및 지원,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과 교류를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된 (사)한국발레협회 부산·경남지회 창단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발레협회 부산·경남지회 부회장인 민병수 부산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부산예술고등학교 발레 전임 이화성, 정성복 J발레단 대표 정성복, 김옥련발레단 예술감독 김옥련의 안무로 클래식발레 및 창작발레 4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파키타(Paqita) 중, 창작발레 '2016 Bolèro', '해적' 중 그랑 파드되, 창작발레 '운수 좋은 날'

제28주년 부산새싹발레단 정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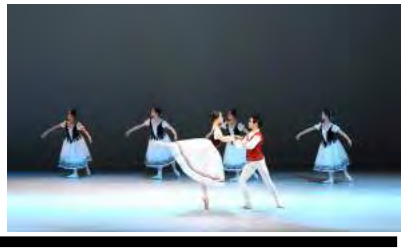
발레리나를 꿈꾸며

일 시 | 9월 4일 일요일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새싹발레단 865-2277

•••

대한민국의 춤을 이끌어갈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1988년에 창단한 부산새싹발레단의 정기공연.
올해로 창단 28주년을 맞는 부산새싹발레단은 그동안 수많은 무용수들을 배출하면서 부산 발레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발레리나를 꿈꾸며'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발레에서부터 모던발레, 창작발레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해적' 3막 중 '꽃의 정원' 군무와 솔로 바리에이션, '겐자노의 꽃축제' 중 남·녀 바리에이션과 군무, '돈키호테' 중 그랑 파드뒤, 창작발레 '꼭두각시'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27일 공연없음)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8월 6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이정호/무화-대풍류에 의한 실내악(대금/한영길, 피리/지영재, 해금/강민정, 가야금/김지현, 거문고/오상훈, 장구/박재현, 신디사이저/강메라)
이경섭/소리놀이 1+1(대금/한영길, 피리/지영재, 해금/강민정, 가야금/김지현, 거문고/오상훈, 아쟁/최영훈, 태평소/박순자, 소금/조은경, 신디사이저/강메라)
박범훈/피리3중주 '춤을 위한 메나리'(고음피리/박순자, 향피리/정주아, 대피리/지영재, 타악/박재현, 김인균)
양방언/Prince of Jeju, Flower of K(대금/손한별, 피리/정주아, 해금/김수빈, 가야금/하지희, 거문고/송다솔, 태평소/박순자, 아쟁/최영훈, 소금/조은경, 신디사이저/강메라, 타악/박재현, 김인균)
캐리비안의 해적(대금/손한별, 피리/정주아, 해금/김수빈, 가야금/하지희, 거문고/송다솔, 태평소/박순자, 아쟁/최영훈, 소금/조은경, 신디사이저/강메라, 타악/박재현, 김인균) 등

- 해설/백규진

8월 13일 (사)일통고법보존회부산지회 연주회

|프로그램|
고성(鼓聲)(소리북/이경희, 최정욱, 권두솔, 이현서, 이충인, 전정현, 박상영, 김철룡, 이창효, 장재령, 김동현)
이생강류 대금 산조(대금/강원집, 장구/박상영)
장구합주 '다드리'(장구/이경희, 최정욱, 권두솔, 이현서, 이충인, 전정현, 김철룡, 이창효)
판소리(판소리/박성희, 고수/신문범)
태평소와 살물이(태평소/박상영, 이창효, 장재령, 꽹과리/이경희, 장구/권두솔, 북/전정현, 징/이충인)

8월 20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크로노스 앙상블' 연주회

|프로그램|
바흐/아리오소
Amazing Grace
비발디/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작품 8 중 '여름'
알비노니/오보에를 위한 2중 협주곡
하이든/현악4중주 '종달새'

- 연주/이장호(바이올린Ⅰ), 조양희(바이올린Ⅱ), 박소영(비올라), 박영주(첼로)
- 특별출연/류재환(오보에,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김미영(오보에, 부산시립교향악단 전 비상임 단원)

Music 음악

동래문화회관 10시 브런치 토크 콘서트
오페라 속 사람 사는 이야기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

일 시 | 8월 2일(화), 9일(화), 16일(화)
오전 10: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

•••

동래문화회관이 화요일 오전 10시에 마련하는 브런치 토크 콘서트.
동래문화회관이 2016년 상주단체인 드림문화예술 오페라단과 함께 하는 '2016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는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욱더 재미있는 오페라 관람을 위해 해설을 곁들인 갈라무대로 진행되는 '오페라 속 사람 사는 이야기'는 7월 '토스카'에 이어 오페라 '나비부인'을 세 차례에 나뉘어 들려준다. 8월 브런치 토크 콘서트에서 진행되는 오페라 '나비부인'의 본 공연은 8월 19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2016 부산기타페스티벌

일 시 | 8월 7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만원, 초중고생 5천원
문 의 |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010-5198-0074

•••

매년 여름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기타의 향연 2016 부산기타페스티벌.
전국의 유명 기타리스트들과 연주단체를 초청해 마련하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의 기타 페스티벌로, 올해는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과 기타리스트 고의석, 김진택, 김현규, 이원복으로 구성된 기타콰르텟 '피에스타', 기타리스트 이성우가 출연, 클래식기타의 매력을 선사한다.
매년 행사를 가져오고 있는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단장 백승남)은 2002년 창단한 부산 유일의 기타오케스트라로, 지역의 클래식기타 연주자와 애호가들을 발굴, 프로 및 아마추어 연주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무대를 선사해오고 있다.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학생, 예술인 패스 소지자 균일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

3일 전장수, 배윤진 기타 듀오 연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졸업한 후 도미, 한국인 최초로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기타를 전공한 후 오스트리아 비엔나 프라이너 콘서바토리에서 관현악지휘, 비엔나 국립음악대학 기타 전공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기타리스트 전장수와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악장으로 있는 기타리스트 배윤진의 듀오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주를 찬양하라
바흐/인벤션 BWV 772, 784, 786, 779, 775, 785, 778, 781
줄리아니/협주적 변주곡 작품 130
로시니/'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등
• 찬조출연/고성현(동아대학교 2학년)

10일 플루트 콰르텟 '클랑' 제4회 정기연주회

지난 2009년 플루티스트 길명훈, 유주영, 한유주, 장예지 등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영화음악, 가스펠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온 플루트콰르텟 클랑의 4번째 정기연주회.
독일어로 '소리, 울림'을 뜻하는 '클랑'은 지난 2010년 통영국제음악제 프린공연에서 '라이징스타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스메타나/오페라 '팔려간 신부' 서곡
비제/오페라 '카르멘' Impressions
멘델스존/'한여름밤의 꿈' 스케르초
라벨/하바네라 형식의 소품
그리그/페르귄트 모음곡 제1번

17일 제2회 소프라노 박현진 독창회
'꾀꼴새에 붙임'

부산대학교와 독일 프란츠 리스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예술종합대학교 겸임교수, 부산예술고등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박현진 독창회.
독일 국영방송국 MDR 합창단 객원단원, 국립바이마르극장 오펀슈트디오 전속 솔리스트를 역임하고 독일 시립극장 켐니츠, 에어프르트, 노르트하우젠, 마이닝엔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한 박현진은 지난 2013년 귀국독창회를 가진 후 오페라 주역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생상, 브람스, 베르크, 시마노프스키 등이 작곡한 동명의 '꾀꼴새'를 들려준다.
• 찬조출연/바리톤 시영민
• 피아노/표세구

24일 황규빈&방제이 듀오 리사이틀 'The Duet'

빈 국립음대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첼리스트 황규빈과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과 영국 왕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빈 국립음대 Postgraduate Diploma 과정에 재학중인 피아니스트 방제이의 듀오 무대.

|프로그램|
브람스/소나타 바장조 작품 99
마르티누/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H.290
라흐마니노프/소나타 사단조 작품 19

31일 아미치 세뗄레와 함께하는 오페라 '춘향전' 갈라콘서트

부산, 경남지역 성악가들이 관객과 보다 친근하게 만나기 위해 결성한 아미치 세뗄레와 함께하는 오페라 '춘향전' 갈라콘서트.
작곡가 현제명이 작곡한 '춘향전'은 한국적인 정서가 풍부한 유치진의 희곡에 서양음악의 특성과 한국 전통음악요소를 접목시켜 한국적 분위기를 창출한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오페라이다.
• 음악감독/이칠성
• 출연/소프라노 박현진(춘향), 테너 장지현(이몽룡), 바리톤 김기환(변사또), 메조소프라노 손혜은(월매), 테너 이광진(방자), 소프라노 권수현(향단)
• 피아노/김경미

9월 7일 바람 'wind&wish' x Quartet C.P
바람 두번째 이야기 윈드미컬

관악기로 표현되는 다채로운 소리들을 독주와 앙상블로 전해주기 위해 창단한 프로젝트 앙상블 바람 'wind & wish'와 Quartet C.P의 무대.

|프로그램|
말콤 아놀드/플루트와 오보에, 클라리넷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페드로 이투랄데/페퀘냐 차르다
끌로드 볼링/센티멘탈
만프레드 멘케/아이네 클라이네 티쉬무지크 등
• 바람 'wind&wish'/박소담, 우다연, 원훈식, 이지현, 이효주
• Quartet C.P/강병곤, 김세연, 박병진, 조용성

아코르 청소년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아코르 청소년오케스트라
010-7677-2447

지난 2002년 9월,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로 창단한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지휘자 정홍기를 중심으로 각 파트별 지도교사와 함께 매주 정기적인 연습과 여름, 겨울방학에 열리는 음악캠프를 통해 그 실력을 쌓고 있는 아코르 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03년 1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정기연주회, 국내외 초청연주회는 물론 자선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음악을 통한 이웃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 지휘/정홍기
- 첼로/구기현
- 플루트/이세민

제2회 강미경 플루트 리사이틀

안토니오 비발디 -플루트, 사계를 노래하다

일 시 | 8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경성대학교와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를 졸업한 플루티스트 강미경 독주회.
지난 2008년 귀국 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강미경은 이번 무대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비발디 '사계'를 플루트와 현악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준다. 특히 연주자 강미경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청중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해설을 맡아 해설음악회로 진행한다.

- 연주/온챔버오케스트라

2016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트리오 제이드 '셋을 위한 브라스'

일 시 | 8월 9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00

클래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실력파 연주자들의 무대로 마련되는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2016년 무대. 8월에는 한국 실내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는 '트리오 제이드'의 무대로 마련된다.
지난 2008년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 첼리스트 이정란, 피아니스트 이효주 등 각 분야 국제콩쿠르를 휩쓸며 각광받던 차세대 연주자들로 결성된 트리오 제이드는 제9회 슈베르트 국제실내악콩쿠르 한국팀 최초 1위 없는 3위, 제8회 트론하임 국제실내악콩쿠르 3위, 아트실비아 실내악 오디션 우승 등 국제콩쿠르 입상과 세계 투어를 통해 우리나라 실내악의 위상을 높여오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낭만주의 시대의 거장 브람스가 남긴 단 3개의 피아노 3중주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 해설/유혁준(음악칼럼니스트)

금정문화회관 with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음악이 게임보다 재미있어요!'

일 시 | 8월 11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여름방학을 맞아 금정문화회관이 마련하는 청소년 음악회 '음악이 게임보다 재미있어요!'.
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는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연주로 펼쳐지는 '음악이 게임보다 재미있어요!'는 클래식 명곡뿐 아니라 영화 '시네마천국', '캐리비안의 해적'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영화음악, 뮤지컬 넘버 등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편안한 휴식같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수준높은 연주로 청소년들의 음악적 감수성을 키워줄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9년 7월 창단된 후 연간 40회 이상 폭넓은 활동을 펼쳐오다 지난 2013년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지정되어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어 오고 있다.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27 · 28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일 시 | 8월 11일 목요일 요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음악풍경 987-5005

그동안 역량있는 신예 음악가들을 발굴, 데뷔무대를 제공해온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8월 무대.
신라대학교 음악학과와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뮤직코스 디플롬을 취득한 피아니스트 한예정과 경성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 위드챔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나연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 진행/고민지

제38회 클라비어 하우스 콘서트

유니세프기금조성음악회 여름음악회

일 시 | 8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클라비어 하우스 콘서트
010-3069-9777

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 박상현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마련해온 제38회 클라비어 하우스 콘서트.
차세대 음악가를 꿈꾸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음악도들의 작은 무대로, 지난해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해온 클라비어 하우스 콘서트는 8월 여름방학을 맞아 장소를 금정문화회관으로 옮겨 유니세프 기금조성을 위한 기부음악회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음악을 통한 나눔과 봉사에 의미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지구촌 어린이를 생각하며 스스로 마련하는 뜻깊은 무대이다.

- 피아노/박상현, 류소정, 이준호, 유규현
- 성악/임영서, 김태현, 이효서 • 바이올린/김현우
- 그림찬조/남영주 • 찬조출연/부산예중 국악팀

제11회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제자음악회 **열정 넘치는 향상음악회**

일 시 | 8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M&M CANTO 010-4434-6605

•••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의 제자들이 펼치는 열정 넘치는 무대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제자음악회'.
차세대 연주자를 꿈꾸는 젊은 음악도들이 그동안 쌓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선보인다.

- 지도교수/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 소프라노/박경란, 서등양(부산예고 1학년)
  김주연, 박소희(부산예고 2학년)
  정희정(경북대학교 성악과 1학년)
  이예원(부산대학교 음악학과 휴학 중)
- 테너/오영찬(부산예고 2학년)
- 바리톤/고승현(계명대학교 성악과 휴학 중)

2016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 II
나비부인

일 시 | 8월 19일 금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시 1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

동래문화회관이 2016년 상주단체인 드림문화예술 오페라단과 함께 하는 '2016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 두 번째 무대.
작곡가 푸치니가 1900년대 초 당시 서구에서 유행했던 이국적 정서를 반영, 동양적 선율로 가득한 오페라 '나비부인'은 집안의 몰락으로 게이샤가 된 나비부인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지휘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지휘자 정금련이 지휘하는 드림문화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교수인 소프라노 김유섬, 영산대학교 교수인 테너 김경, 한세대학교 교수인 바리톤 최종우의 멋진 하모니로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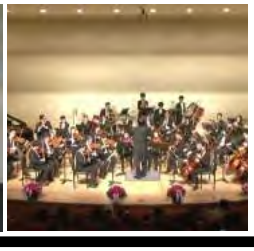
아라청소년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일 시 | 8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재영 010-6296-0885

•••

지난 2015년 1월 창단 후 금정구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봉사연주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 아라청소년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아라, 아토 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휘자, JY첨버 오케스트라 지휘자, 부산시민오케스트라 단원, 장전제일교회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지휘자 김재영이 이끄는 아라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15년 9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장전3동 주민초청 영화제 오프닝연주, 금정지역 아동센터 연합발표회, 메이 플루트 페스티벌 초청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음악감독, 지휘/김재영
- 협연/김요섭(바이올린), 서지영(메조소프라노)



정두환의 토크콘서트
철학, 영화 그리고 음악이야기 2

일 시 | 8월 21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학생 1만원
문 의 | 정두환 010-8427-7019

•••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의 토크콘서트 '철학, 영화 그리고 음악이야기' 두 번째 무대.
합창단, 오케스트라, 오페라 지휘, 평론, 작곡 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음악 작업을 펼쳐온 정두환은 현재 정두환의 음악친구들 오케스트라 지휘자, 부산볼런티어윈드앙상블 지휘자, 한국음악평론가협회 이사, 부산MBC부설 (사)문화도시네트워크 지역문화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4년째 열리고 있는 '철학, 영화 그리고 음악이야기'는 음악과 영화, 영화와 음악의 끝없는 수평선에서 찾은 상호보완의 철학적 의미를 찾아서 떠나는 음악이야기이다.

- 지휘, 해설/정두환
- 연주/정두환의 음악친구들 오케스트라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18회 프롬나드 콘서트
'Summer Fest I 여름 축제'

일 시 | 8월 25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3

•••

127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의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롬나드 콘서트 8월 무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KNN방송교향악단,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한국지휘자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양경아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Summer Fest I 여름 축제'라는 부제로 여름을 담은 아름다운 클래식 명곡을 선사한다.

- 예술감독 오충근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양경아)

김은희 피아노 독주회
음악으로 시대를 읽다

일 시 | 8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김은희 010-9269-5567

•••

이화여자대학교와 독일 에센폴크방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마틴루터대학교 피아노교수법 석사과정,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 다양한 연주활동과 후학양성에 힘써온 피아니스트 김은희 독주회.
현재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부회장, BS 오퍼스 앙상블 멤버, 부산음악협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듀오협회 회원, 삼일교회 피아니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김은희는 이번 독주회를 시작으로 '음악으로 시대를 읽다'는 주제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 피아노/정혜은
- 작곡/김해영

스트라이허 앙상블 연주회

일 시 | 8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7천원
문 의 | 스트라이허 앙상블
010-6587-5657, 010-3565-4576

•••

2009년 창단 후 기존 현악4중주의 연주형태를 벗어나 더블베이스와 함께 5중주를 기반으로 한층 더 풍부한 음악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에 힘써온 스트라이허 앙상블의 무대.
현재 교육청에 소속되어 찾아가는 음악회, 무료 봉사연주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스트라이허 앙상블은 올해부터 피아노 연주자를 영입,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 연주/남가영(리더, 바이올린), 조우태(바이올린), 김민경(비올라), 이강수(첼로), 박예송(더블베이스), 이수민(피아노)
- 해설/고민지

제1회 부산아마추어교향악축제

일 시 | 8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8:10,
27일-28일 토-일요일 오후 5:00, 5:4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

동래문화회관이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힐링음악단체인 '클래식 라디오'와 공동주최로 마련하는 '제1회 부산아마추어교향악축제'.
그동안 부산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부산 베누스토 오케스트라, 오아시스 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멜로스 오케스트라, 다이나믹 오케스트라, 부산대학교 Con Brio 오케스트라, 부경대학교 오케스트라 등 6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부산아마추어교향악축제'는 문화 소비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예술을 창작하는 과정에 직접 뛰어든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평범한 삶 속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음악 스펙트럼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일정|
26일(금) 오후 7:30 부산대학교 Con Brio 오케스트라
26일(금) 오후 8:10 부경대학교 오케스트라
27일(토) 오후 5:00 다이나믹 오케스트라
27일(토) 오후 5:40 오아시스 심포니오케스트라
28일(일) 오후 5:00 부산 베누스토 오케스트라
28일(일) 오후 5:40 부산멜로스 오케스트라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피아니스트
라도스와브 솝착 독주회

일 시 | 8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폴란드 국립 쇼팽 음악대학교에서 에드워드 볼라닌 교수, 빅터 마카로프 교수를 사사한 피아니스트 라도스와브 솝착은 지난 2008년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린 제1회 유러피안 피아노 콩쿠르 'Halina Czerny-Stefanska in memorian' 2등, 2000년 제14회 폴란드 국제 쇼팽 피아노콩쿠르 'Honorary Diploma'를 수여받고 최고의 폴란드인 피아니스트상 및 다수의 특별상을 수상했다. 솝착은 현재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 쇼팽 음악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프로그램|
바흐-파인버그/오르간 소나타 5번 중 '아다지오'
슈베르트/방랑자 환상곡
쇼팽/마주르카 작품 50 제2번, 작품 33 제3번,
스케르초 제1번 작품 20 등

이노영 클래식기타 콘서트

일 시 | 8월 28일 일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30% 할인)
문 의 | 울림아트 010-5270-2024

•••

클래식 기타만의 풍부하고 웅장한 소리를 전달해온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노영 부산연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프라이브루크 국립음대 석사과정, 바이마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이노영은 그동안 스페인 대사관 10주년 기념 전국 클래식 기타 콩쿠르 일반부 3위, 대전일보, 서울 신포니에타 주관 전국 클래식기타 콩쿠르 일반부 1위 없는 2위, 한국기타협회 전국 클래식기타 콩쿠르 일반부 3위, 독일 제3회 클래식 기타 국제콩쿠르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2위, 에르디테 기타 국제콩쿠르 4위, 베를린 클래식 기타 국제콩쿠르&페스티벌 3위를 수상하는 등 국내외 콩쿠르 수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노영은 솔리스트로서뿐 아니라 기타 그룹 피에스타 멤버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윤한과 함께하는 렉처 콘서트
해피버스데이, 드뷔시

일 시 | 8월 30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커피 제공)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3

•••

음악에 색을 입힌 색채의 마술사 '드뷔시', 명곡을 탄생시킨 그의 강렬한 사랑이야기를 로맨틱가이 팝 피아니스트 윤한의 해설로 만날 수 있는 금정문화회관 브런치 콘서트 '해피버스데이, 드뷔시'.
미국 버클리음대를 졸업하고 보스턴과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피아니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윤한은 연주가로서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 MC 겸 음악감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윤한은 인상주의 작곡가 드뷔시의 대표곡을 피아니스트 조준영, 바이올리니스트 윤동환, 첼리스트 이호찬 등 라이징 스타들과 함께 감각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공연
창작민요극 '세여자의 아리랑꽃'

일 시 | 9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

젊은 소리꾼들로 결성된 여성 민요그룹 '아리수'가 선보이는 창작민요극 '세여자의 아리랑꽃'.
올해 초 발표한 아리수의 3집 음반 '여성, 아리랑꽃으로 흩날리다'에 수록된 창작민요와 판소리로 제작된 '세여자의 아리랑꽃'은 자유롭고 당찬 20대의 멋진 여자, 직장과 가정을 두 어깨에 짊어진 30대 슈퍼우먼,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교육이 모두인 40대 아줌마 등 이 시대 여성의 삶과 애환을 세 명의 전통 소리꾼과 배우가 노래와 연기로 펼쳐낸다.
'아리랑+나무(樹)=아리랑 나무'라는 뜻을 지닌 '아리수'는 지난 2005년에 설립한 전문예술법인이자 사회적기업으로, 그동안 '21세기 민요창조그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창작민요극이라는 아리수만의 실험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여왔다.

김성숙, 안준희의 프로젝트 콘서트(9)

그대와 함께 춤을(Shall we Dance?)

일 시 | 9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안준희 010-4151-3667

•••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와 미국 위스콘신주립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성숙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프랑스 에꼴 노르말 고등음악원, 퀘일 말메종 국립음악원, 메쓰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부산반주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안준희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콘서트 집중탐구 시리즈 9번째 무대.
크라이슬러, M. Cornic, 피아졸라, 스트라우스 등 춤곡과 관련된 여러 작곡가의 1piano 4hands 곡을 들려준다

(사)더 솔로이스츠 제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대학생 8천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사)더 솔로이스츠 사무국 516-5999

•••

국내외 유수 교향악단의 악장 및 수석단원들로 구성된 '더 솔로이스츠'의 무대.
스트링 오케스트라,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목관 오중주, 현악 사중주, 그리고 아마추어 스트링 까메라타까지 5개의 단체가 하나로 이루어진 '더 솔로이스츠'는 현악, 관악에서뿐만 아니라 건반 및 아마추어 연주자들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악기편성으로 실내악에서부터 풍성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까지 다양한 레퍼토리의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창단 1주년을 기념해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의 협연으로 꾸민다.

꿈, 열정, 그리고 사랑이여

소프라노 이수진 리사이틀

일 시 | 9월 3일 토요일 오후 6: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이수진 010-2817-1910

•••

부산에서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으로 데뷔한 후 그동안 '코지 판 투테', '라보엠', '사랑의 묘약' 등 오페라 주역 및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마리아 역으로 관객과 만나온 소프라노 이수진 리사이틀.
그동안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탐구심으로 관객과 만나온 이수진은 이번 무대에서 '꿈, 열정, 사랑이여'라는 부제로, 프랑스 작곡가 G. 포레, 독일의 거장 R. 스트라우스의 주옥같은 가곡들과 한국가곡, 우리의 인생을 4계절에 빗댄 L. 로날드의 연가곡 'A cycle of life',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G.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아리아를 들려준다.

- 반주/안준희
- 해금/김수빈(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플루트 사중주 '율' 세번째 이야기

꽃보다 아름다운…

일 시 | 9월 4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 의 | 김인호 010-4554-7777

•••

허연지(플루트), 최은정(플루트), 김인호(알토플루트), 정병태(베이스플루트) 등 부산에서 명강사로, 오케스트라, 앙상블 지휘자, 음악감독, 리더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4명의 젊은 플루티스트들로 결성된 플루트 사중주 '율'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3년 10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플루트 사중주 '율'은 '관객과의 소통'을 팀의 모토로 삼아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재즈, 뮤지컬, 가요 등 다양한 연주곡을 플루트 사중주의 풍성한 매력으로 들려준다

Play 연극

연극 '몽타주'

일 시 | 5월 19일(목)-8월 28일(일) 오후 5:00, 8: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사실적이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영화를 뛰어넘 오감을 자극하는 연극 '몽타주'.
유년시절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범을 쫓기 위해 천재적인 몽타주 화가로 성장한 서정민과 연쇄살인범 유홍준,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서정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반 형사 조상철과 서정민의 친오빠 서정훈의 치밀한 추리게임을 그린 작품으로, 등장인물들의 숨겨진 사연이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서서히 드러난다.

연극 '보잉보잉'

일 시 | 6월 23일(목)-8월 2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8/16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

2010년, 2011년 골든티켓 어워드 연극부문을 수상하며 13년간 장기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코믹연극의 대표작 '보잉보잉'.
어느날 주인공인 성기를 찾아온 친구 순성. 성기는 순성에게 자신이 세 명의 스튜디어스와 약혼했다고 털어놓는다. 성기는 그녀들의 비행 스케줄에 맞춰 만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며 그녀들이 서로 만날 일은 없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이날 그녀들의 비행 스케줄이 꼬이면서 성기의 세 다리 로맨스도 꼬이기 시작하는데….
바람둥이 주인공 성기의 세 다리 코믹 해프닝을 그린 '보잉보잉'은 여인천하 사이에서 바람둥이의 정석을 보여주는 성기와 순진한 사랑을 꿈꾸는 순성의 대조적인 모습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연극 '발칙한 로맨스'

일 시 | 6월 23일(목)-9월 2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9/15일 오후 6:00, 월요일, 8/16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

배우 김수로와 SNL 크루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김민교의 발칙한 상상력으로 탄생한 화제의 로맨틱 코믹극.

15년 전 고교시절의 순수한 첫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수지와 봉필, 수지와 이별 후 봉필은 할리우드로 건너가 세계적인 영화감독으로 성공하고 결혼한 수지는 평범한 유부녀로 지내다 우연히 봉필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한국에 잠시 머무르게 된 봉필이 수지에게 연락하면서 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 과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발칙한 로맨스'는 10년만에 만난 첫사랑과의 아슬아슬한 재회를 앙큼한 상상력과 포복절도한 대사로 그려낸 작품이다.

연극 '최면'

일 시 | 6월 24일(금)-9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9/15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

지난 2014년 여름, 부산과 울산에서 성공적인 초연무대를 가진 후 지난해 서울 대학로에 진출하며 관객들을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던 연극 '최면'.

2016년 버전으로 다시 한번 올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최면'은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하게 된 남자가 그녀를 얻고자 최면에 빠지게 되고, 11명의 희생자들을 만들면서까지 자신이 원하는 인격을 그녀에게 주입하게 되지만 예기치 못한 최면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이코패스 공포스릴러극이다.

• 작, 연출/박정인

연극 '이프온리'

일 시 | 7월 1일(금)-9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토·공휴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디코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3일간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 '이프온리'.

10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앞둔 한 커플의 일상이 한 순간에 바뀐다. 재운과 수진은 결혼 준비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그들이 헤어지는 순간 재운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게 된다. 재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진은 공원에서 죽음을 결심하고, 그때 나타난 점쟁이의 도움으로 하루에 한 시간, 삼일 동안 재운을 만날 수 있게 되지만 막상 재운은 수진을 기억하지 못한다.

죽어서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독특한 형식으로 풀어낸 연극 '이프온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그(그녀), 보내고 남는 그녀(그)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워준다.

• 작/이민혁 • 연출/이규인

국민연극 '라이어 1탄'

일 시 | 7월 8일(금)-10월 3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중, 고, 대학생 50% 할인)

문 의 | 디오르골엔터테인먼트 664-7880

•••

탄탄한 구성과 해학을 담은 강력한 웃음코드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폭소코미디극 '라이어'.

윔블던에는 메리, 스트리트햄에는 바바라, 두 부인을 두고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 바쁘게 이중생활을 하는 택시 운전사 존 스미스는 가벼운 강도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의 완벽한 스케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국내에서만 18년째 공연되고 있는 스테디셀러 '라이어'는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되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기상천외한 스토리와 빠른 극 전개로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연극 '검정고무신'

일 시 | 7월 15일(금)-8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에저또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미니티켓 1600-1716

•••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힘든 시기를 참고 이겨내는 육남매의 사랑과 우애를 웃음과 감동적으로 그려낸 연극 '검정고무신'.

홀로 오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는 병들어 눈을 감기 전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업동이를 오남매에게 부탁한다. 맏딸 진실이는 동생들을 돌보며 가장의 의무를 다한다. 꿈이 없는 둘째 야동이, 착한 셋째 갑동이, 개구쟁이 넷째 양동이, 착한 다섯째 봉실이 그리고 업동이….

육남매의 바람 잘 날 없는 분주한 일상이 걸쭉한 부산 사투리 속에 펼쳐지는 '검정고무신'은 어렵지만 정이 있었고 나눔과 사랑이 있었던 그때 그 시절 그 추억 속으로 관객들을 빠져들게 한다.

뮤지컬 '복순이할배'

일 시 | 7월 22일(금)-9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3만원(초중고생 본인에 한해 평일 60%, 주말 40% 할인)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주인공 태수는 친구처럼 지내는 옛사랑 지혜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만 지혜에게 사랑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복지학과에 재학 중이던 태수는 어느날 괴짜 독거노인 할아버지 집에 실습을 나가게 되고 복순이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의미에 대해 배우게 되지만 답답하고 눈치없는 탓에 혼나기 일쑤다. 과연 태수는 불같은 성정의 할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까?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복순이할배'는 탄탄한 연출력과 연기력, 귀까지 즐겁게 해주는 주옥같은 OST가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 작, 연출, 작사, 작곡/박정우

극단 더블 스테이지 '라랄라 흥신소'

일 시 | 8월 5일(금)–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일요일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6번출구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극단 더블 스테이지 010-3671-4071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케첩을 좋아하는 일곱 살짜리 꼬마와 마주친다. 꼬마의 빨간 케첩이 하얀 옷에 튀는 순간 노인은 꼬마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는 법. 돈만 주면 어떤 일이든 해결해 주는 흥신소를 찾아간다. 케첩 때문에 어린 아이를 죽여달라는 노인의 말에 흥신소 직원들은 경악하지만 그가 들고 온 돈가방을 확인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돈이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씁쓸한 현실을 블랙코미디극으로 풀어낸 '라랄라 흥신소'는 지난 2004년 부산연극제에서 우수연기상, 신인연기상, 무대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작/김지숙 • 연출/김동민

손숙의 그여자

일 시 | 8월 31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중고생 본인, 20인 이상 단체 50% 할인)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시몬느 드 보봐르의 소설 '위기의 여자'를 한국 현실에 맞게 무대화한 손숙의 모노드라마 '그여자'.
남편과 아이들에게 모든 걸 걸어온 한 여자가 어느 날 밤, 남편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남편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된다. 놀라움과 분노, 초조,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서 처음으로 그 여자는 자기 성찰을 시작하고, 여자는 무엇으로 살며,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
지난 1999년 초연 당시 무대에 올랐던 손숙이 15년 만에 다시 출연해 화제가 된 '그여자'는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던 한 여성이 남편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 작/오증자
• 연출/임영웅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우수공연 선정작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

일 시 | 9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6:00, 4일 일요일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지난 1991년 한국에서 초연된 후 25년간 총 9천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최다 관객, 1천만 관객 동원, 매 공연 관객점유율 70% 이상 달성 등 대기록을 세운 코믹 뮤지컬 '넌센스'.
뉴저지 호보켄 성헬렌 학교에서 요리사 줄리아 수녀가 만든 야채스프를 먹고 무려 52명의 수녀들이 식중독 증상으로 죽어버린다. 다행스럽게도 외출 중이었던 수녀들은 이들의 장례비용을 모으기 위해 수녀원에서 가장 재능있는 수녀들을 모아 자선공연을 계획하고, 5명의 엽기발랄 수녀들의 배꼽잡는 장례비 마련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이번 무대는 쉴 새 없는 수다와 유머, 예측할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즐거운 웃음을 선사한다.

Dance 무용

국립부산국악원 상설공연

'왕비의 잔치'

일 시 | 5월 13일(금)–12월 25일(일) 수–금요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월–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그랜드호텔 전용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국 전통공연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지역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국립부산국악원 상설공연 '왕비의 잔치' 2016년 무대.
궁중의 화려함과 영남의 신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왕비의 잔치'는 올해 국립무용단 예술총감독을 맡은 바 있는 국수호 명무의 안무로 궁중정재를 비롯 동래학춤, 동래고무, 고성오광대, 북의 대합주 등 지역민속무용과 국수호 안무가의 창작춤, 판소리 '음식가'가 추가되는 등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과 만난다.

2016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감(藝感),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춤과 사람 '그 옛날, 그 하늘 빛'

일 시 | 8월 31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회관 631-1377

부산예술회관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한 상설무대.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의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매주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8월 무대에서는 부산에서 전통을 이어온 춤꾼들이 모여 멋과 신명이 넘치는 우리 전통춤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태평무, 한량춤, 살풀이춤, 지전춤, 쌍승무, 진주교방굿거리춤, 소고춤
• 출연/송선숙, 송임숙, 김갑용, 이경화, 강수나, 이다경, 김주연, 이현주, 안주희, 박은혜

Concerts 콘서트

TAEYEON(태연), Butterfly Kiss – 부산

일 시 | 8월 6일 토요일 오후 6:00, 7일 일요일 오후 4:00 KBS부산홀
입장료 | 전석 11만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2016 백지영 전국투어 콘서트 'ANDANTE'– 부산

일 시 | 8월 27일 토요일 오후 7:00
사직실내체육관
입장료 | VIP석 13만 2천원, R석 11만원
S석 8만 8천원
A석 7만 7천원, B석 5만 5천원
문 의 | (유)디온커뮤니케이션 1522-2274

전인권밴드 콘서트 – 부산

일 시 | 9월 3일 토요일 오후 7:3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9만원, S석 8만원
문 의 | 전인권컴퍼니 1544-1555

Event 행사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여름 음악 이야기 시리즈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정두환 011-574-0423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진행되고 있는 '좋은음악 & 좋은만남'은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만남의 장이다.
8월 강좌에서는 '여름음악'을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국내외 유명 썸머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알아본다.

|프로그램|
9일(569회) 실내악으로 만나는 여름음악 이야기
16일(570회) 교향곡으로 만나는 여름음악 이야기
23일(571회) 썸머뮤직페스티벌(국내)
30일(572회) 썸머뮤직페스티벌(해외)

제11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손의 비밀 Secret of Hands

일 시 | 8월 4일(목)-7일(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중극장, 소극장
문 의 |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www.hibimf.org

매년 여름 황홀하면서도 놀라운 매직의 세계를 선사해온 제11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세계적인 마술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부산국제마술경기대회'를 비롯해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국내외 최정상 매지션들의 화려한 매직갈라쇼를 관람할 수 있는 '나이트 갈라쇼(Night Gala show)'와 스토리텔링 매직쇼 '조선마술사', 매직컬 아트쇼 '박물관이 살아있다', 초청공연 '탑 클래스', 세계적으로 희귀한 흑마술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획공연 '비주얼 매직 쇼', 화려한 입담과 위트가 넘치는 '스탠딩토크 매직쇼', 관객의 눈 앞에서 화려한 손기술을 뽐내는 명품 클로즈업 '줌인' 등 올해는 마술과 타 장르간의 콜라보 무대를 시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공연들을 선보인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과 문화가
교감하는 한밤의 문화공연

일 시 | 8월 5일(금)-6일(토) 오후 8:00, 12일(금)-13일(토) 오후 7:00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500-2123

체육시설을 찾는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마련하는 한밤의 문화공연.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족영화 '미니언즈', '해운대' 상영을 비롯해 전통무용 공연 '춤과 사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악연주회 등 다양한 행사로, 한여름 밤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낸다.

|프로그램|
5일(금) 애니메이션 '미니언즈'(상영시간 91분)
6일(토) 영화 '해운대'(상영시간 120분)
12일(금) 전통무용 공연 '춤과 사람'
13일(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시네아트 페스티벌 '상상의 숲'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1:00
영화의전당 야외 상상의숲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00

'상상의 숲'을 주제로 자신들만의 재해석된 작품과 상품으로 전시, 판매되는 부산 신진작가들의 공간예술프로젝트 '시네아트 페스티벌'.
전문작가들의 공간예술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영화의전당만의 차별성을 둔 융복합 문화예술행사로 김광민, 김관우, 김대홍, 김동연, 배창민, 옥진화, 조익준, AWBAS 작가들이 참여하는 시네아트 페스티벌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속적인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전시, 공연, 아트마켓, R&D, 예술체험, 홍보마케팅 등 축제와 소통의 장이 펼쳐진다.

2016 공장 속 예술 놀이터

일 시 | 8월 6일(토)-30일(화) 예술지구_p
문 의 | 예술지구_p 070-4322-3113
www.artdp.org

금정구 금사공단의 공장을 개조해 탄생된 복합문화공간 '예술지구_p'가 5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미술전시 관람 외에도 창작활동과 공연 체험 등 직접 놀이를 통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형 전시교육 프로그램 '2016 공장 속 예술 놀이터'.
오감의 낯선 체험을 통해 7개의 상상을 경험하는 체험프로그램 '상상체험 7개의 방'을 비롯 스프레이 물감을 이용, 다양한 사물의 실루엣을 발견하는 '스프레이 스텐실', 현대미술의 즉흥성과 우연성을 체험해보는 '스핀 아트', 생활 속 버려진 것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구상해보는 '어두운 공장에 생명의 나무를 만들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
(매주 월요일 휴관)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9강 헨델

일 시 | 8월 9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음악평론가 곽근수의 강의로 진행되는 무지크바움 인문학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음악' 9번째 강좌.
이번 강좌에서는 바로크 시대에 로코코라는 화려한 음악양식을 통해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수많은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작품을 남기면서 인류문명에 위대한 공헌을 이룩한 작곡가 헨델을 집중 조명한다.
헨델이 남긴 웅대하고도 화려한 합창음악, 로코코의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관현악, 고대 영웅들의 삶과 사랑이 전개되는 오페라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격려와 용기를 준다.

2016 부산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일 시 | 8월 9일(화)–1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동래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부산민주공원
입장료 | 무료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부산민주공원 790–7400

2016년 부산 7개 공연장 상주단체로 지정된 11개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2016 부산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을숙도문화회관의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금정문화회관), 극단 누리에(부산예술회관), TIF오케스트라(해운대문화회관), 극단 에저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효원국악관현악단(이상 영도문화예술회관), 극단 자갈치, 무용단 redstep, 우리소리 우리가락 청(이상 부산민주공원) 등 11개팀이 오페라에서부터 관현악, 앙상블, 국악, 창작 마당극, 창작춤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일정|

극단 누리에 '개 짖는 날'
9일(화)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Winner Klassik'
9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현악4중주의 밤
10일(수)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극단 자갈치 창작마당극 '新 수궁뎐'
11일(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TIF오케스트라 관악앙상블의 밤
11일(목)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드림문화예술 오페라 '사랑의 묘약'
12일(금)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네오필오케스트라 Summer night '씨네마콘서트'
12일(금)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우리소리 우리가락 청×효원국악관현악단 한여름밤 우리음악 축전 '더위야 물럿거라'
12일(금) 오후 7:30 부산민주공원

무용단 redstep 창작춤 '蘊'
13일(토) 오후 5:00 부산민주공원

극단 에저또 '검정고무신 2'
14일(일) 오후 5:00 동래문화회관

[인문음악회]월드뮤직, 세계음악여행(19)

Feeling Jazz –다양한 분위기의 재즈

일 시 | 8월 13일 토요일 오후 4:30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안용복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최정욱 010–3853–6634

월드뮤직 음악을 중심으로 영화, 사진,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 세계 각 민족의 역사를 토대로 인문학적 해설을 시도하는 렉쳐콘서트 '월드뮤직, 세계음악여행'.

|프로그램|
1부/Jazz 편집영화 20분 감상
2부/다양한 분위기의 재즈 해설 및 감상
• 기획 및 해설/최정욱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일 시 | 8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아트 커뮤니케이터 강사 김성민과 함께하는 무지크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네 번째 강좌 '라파엘로'.
강사 김성민은 국내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2006년 이탈리아 로마로 이주,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지 미술관 도슨트로도 활동한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로, 지난 10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현재는 본인의 전문분야인 음악과 미술, 그리고 여행을 주제로 예술융합강연을 가져오고 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 시리즈 세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잘 생기고 온화한 성격의 화가 라파엘로를 만나본다.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독도사랑 시낭송회

일 시 | 8월 23일 화요일 오후 6:30
양정새홍제병원 강당
문 의 |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제6차 겨레의 섬 독도 독도사랑 시낭송대회를 비롯한 우수작품 공모 시상식과 석대광 시인의 제3대 한국독도문학작가협회 이사장 취임식 개최.

부산시민회관 추억의 영상음악회

도병찬의 뮤직파일 '추억의 영상음악회'

일 시 | 8월 29일 월요일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시민회관이 전 KBS한국방송 라디오 프로듀서로 30여 년간 라디오 음악방송을 진행해온 DJ 도병찬과 함께 마련한 추억의 영상음악회 '도병찬의 뮤직파일'.

Display 전시

영화의전당 특별전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일 시 | 4월 23일(토)–9월 18일(일)
영화의전당 비프힐
입장료 | 일반 1만 7천원, 어린이 2만 3천원
문 의 | (주)PMC네트웍스 1599–7372

고은사진미술관 기획전

'브뤼노 레끼야르, 형태의 시'

일 시 | 5월 14일(토)–8월 10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www.goeunmuseum.kr

고은미술사진관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 죄 드 폼 국립미술관과 함께 기획한 '브뤼노 레끼야르, 형태의 시'.
국내에는 비교적 생소한 프랑스 사진작가 브뤼노 레끼야르는 프랑스 사진의 전통을 잇는 작가로 형태가 강조되고 초현실적 분위기가 내재되어 있어 독특한 사진풍을 자아낸다.

내셔널 지오그래픽展

미지의 탐사 그리고 발견

일 시 | 6월 17일(금)–9월 18일(일)
영화의전당 비프힐
입장료 | 일반 1만 3천원, 초중고생 1만원
유아(36개월 이상) 8천원
문 의 | 내셔널지오그래픽 전시사무국 642–5747

문명과 자연의 미스터리, 미지의 탐험과 위대한 발견을 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전–미지의 탐사 그리고 발견'.
5개의 본관과 한 개의 특별관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전 세계 탐험가와 과학자를 후원해 온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역사를 만나는 1관을 비롯해 문명, 우주, 탐험, 수중에 관한 사진, 영상들이 2관부터 5관까지 펼쳐진다.
특히 특별관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속 탐험가이자 영화 '타이타닉', '아바타' 등을 제작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탐험 영상과 자료가 전시된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불리는 마리아나 해구를 단독 잠수해 세계 최초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그의 도전기는 '딥시 챌린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당시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PRESENT II

일 시 | 7월 5일(화)–8월 14일(일) 조현화랑
문 의 | 조현화랑 부산 747–8853

임창석의 유럽여행 스케치

일 시 | 7월 10일(일)–8월 9일(화) 카페 쿠무다
문 의 | 카페 쿠무다 701–7559

프랑스 파리에서 스페이 바로셀로나, 그라나다, 론다, 세비야, 마드리드까지 여정을 그린 판화 스케치展.

양석대 초대 개인전

일 시 | 7월 13일(수)–8월 14일(일) 정준호갤러리
문 의 | 정준호갤러리 943–1004

제3회 크리에이티브 오렌지 아트 페어 2016

일 시 | 7월 16일(토)–8월 14일(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8천원, 초등학생 5천원
문 의 | ㈜아츠앤컴퍼니케이 939–8922

미술의 대중화와 신진 작가 발굴, 현대미술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제3회 크리에이티브 오렌지 아트 페어.
한국 페어 최초 중국 현대미술작가들이 대거 출품, 방문하는 이번 행사는 중국 작가 외에도 국내 작가 200여 명이 참가해 회화, 조각, 사진, 설치미술 등 3천여 점을 전시, 판매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화가 박수근과 그의 차남인 서양화가 박성남의 2代 특별전과 2세기 빛의 화가 강종렬 화백의 30m 대작도 특별 전시된다.
이밖에 행사 기간 동안에는 시인 함민복, 이윤학과 함께하는 '시와 만나는 미술', 갤러리 영화를 표방하는 영화감독 민병훈의 영화 '평정지에는 평정지에다' 상영, 그리고 민병훈 감독과 관람객이 만나는 '미술관 속 영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하형선展

일 시 | 7월 21일(목)–8월 23일(화)
소울아트스페이스 1, 2전시실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연합
2016 제13회 부산국제디자인제

'디자인–식(食)문화를 말하다'展

일 시 | 7월 27일(수)–8월 26일(금) 동명갤러리
문 의 | 부산국제디자인제 805–8043

P&O 갤러리 초대

김종록 개인전

일 시 | 8월 1일(월)–8월 20일(토) P&O 갤러리
문 의 | P&O 갤러리 928–1233

김수강展

일 시 | 7월 21일(목)–8월 23일(화)
소울아트스페이스 1, 3전시실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사진과 회화의 경계에서 '검 바이크로멧(Gum Bichromate)' 프린트 방식을 채택하여 수공예적 작업세계를 이어오고 있는 김수강 작가 작품전.
보자기, 수건, 그릇 등 일상의 사물을 다룬 지난 연작에서부터 신작 'Egg' 시리즈까지 총 2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타워아트갤러리 기획

나라사랑 나라꽃, 청포 김화태 무궁화 작품전

일 시 | 8월 1일(월)–8월 31일(수)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갤러리 아인 여름 기획전

공예디자인 작품전–윤현진, 이정훈

일 시 | 8월 4일(목)–9월 22일(목)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각종 디자인페어에서 참신함을 인정받고 있는 윤현진, 이정훈 두 젊은 공예디자이너의 가구, 조명, 소품 등을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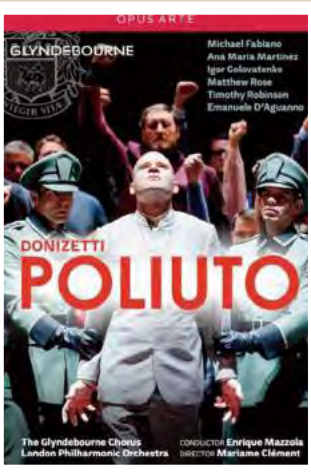
RECORD

거장 마크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

마크 민코프스키(지휘), 루브르의 음악가들, 프란체스코 코르티(포르테피아노), 티보 노알리(바이올린)

▶ 민코프스키 지휘와 시대악기로 만나는 모차르트 협주곡의 정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K.488, 바이올린 협주곡 5번 K.219를 수록한 영상물로, 원전연주의 거장 마크 민코프스키와 그의 분신과도 같은 '루브르의 음악가들'의 2015년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주간 실황을 담고 있다. 경쾌한 속도감을 몸소 보여주는 민코프스키의 제스처와 클로즈업 화면, 루브르의 음악가들의 감각적인 반응과 기동력, 프란체스코 코르티의 피아노포르테 연주와 루브르의 음악가들 악장 티보 노알리의 깊이 있는 연주, 잔향의 조미료를 쏙 뺀 앙상블과 모차르테움의 생생한 울림 등이 한데 어우러진 최고의 영상물이다. 보너스트랙으로 슈베르트 교향곡 8번 '그레이트' 4악장,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28번 K.304 2악장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도니제티 '폴리우토'[한글자막]

엠마누엘 다구아노(네아르코), 미카엘 파비아노(폴리우토), 아나 마리아 마르티네스(파올리나), 이고르 골로바텐코(세베로), 티모시 로빈슨(펠리체), 엔리케 마졸라(지휘), 다비드 맥비커(연출),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글라인드본 합창단

▶ 2015년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의 오프닝 오페라

오페라 '폴리우토'의 작곡가인 도니제티는 살아 생전 이 작품의 무대 공연을 보지 못했다. 1838년에 작곡을 했지만 당시 국왕 페르디난드 2세의 검열에 걸려 리허설 무대가 취소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초기 기독교 순례자의 모습을 무대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지만, 권력을 쥔 자에게는 어떤 형태이던 기존 질서의 파괴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무대에서 보고 싶지 않을 것이었다. 화가 난 도니제티는 마침 파리오페라단의 요청으로 프랑스어로 수정,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1840년 파리에서 상연을 하게 된다. 원본 오페라는 1848년에 이태리에서 상연되지만 이미 몇 개월 전 도니제티가 죽은 후였다. '폴리우토'는 흔히 잊혀진 오페라라고 하지만, 단순한 플롯에 강력한 힘을 담은 초기 기독교 순례자의 이야기라는 차원에서 빈도수가 낮긴 해도 꾸준히 무대에 올려졌었다. 극의 줄거리가 그러하듯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조명과 소박한 무대 연출로 오페라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최대한 집중한 모습이다. 폴리우토의 깊은 신앙심을 연기하는 테너 미카엘 파비아노의 풍부한 성량은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포르투갈 작곡가들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집

부르노 보랄힌호(첼로), 굴벵키안 오케스트라(연주), 페드로 네베스(지휘)

▶ 우아한 서정과 기묘한 인상의 대조

19세기 후반에서 부터 20세기 후반 사이 포르투갈 음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곡가들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이 수록된 음반으로, 쉽지 않지만 뜻 깊은 시도가 담겨 있는 음반이라 할 수 있다. 페드로 고메스의 가필로 완성된 루이스 코스타의 '포에마'와 프레이타스 브랑코의 '세나 리리카'에서 느껴지는 우아한 서정은 로스트로포비치의 위촉으로 완성된 로페스-그라사의 '실내악 첼로협주곡'과 브라가 산토스의 '첼로 협주곡'의 우울하고 기묘한 인상과 대조를 이룬다. [*포에마(1번 트랙), 세나 리리카(5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BOOK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최순우 지음 / 학고재 / 312p / 1만 6천 800원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의 미'를 깊이 각인시켰던 혜곡 최순우(兮谷 崔淳雨, 1916~1984)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책이 나왔다.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와 짝을 이루는 책으로 이번에는 개정판으로 독자들을 다시 만난다. 50만 부 이상이 팔렸던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가 한국 미술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속속들이 깨우쳐주는 책이라면,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씨를 엿보게 하는 책이다. 개정판에서는 책의 도판을 흑백에서 컬러로 교체했다. '담녹색으로 담담한 설채' '잘 익은 수박색' '쪽빛 치마에 연옥색 자주 회장저고리' 등 최순우 선생의 탁월한 색채적 표현을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한국 미술을 넘어 한국의 자연 풍경과 음식, 예술인들과의 인연을 다룬다. 미술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멋을 사랑하고 그것을 알리려 노력한 선생의 삶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미를 알리는 데 평생을 바친 최순우 선생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다.

화가의 마지막 그림

이유리 지음 / 서해문집 / 320p / 1만 4천 800원

죽음을 목전에 둔 화가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미술 저술가인 이유리는 화가가 죽음에 임박한 순간, 그들이 무얼 목격하고 예감하였으며 어떤 메시지를 최후로 남기고 싶었는지 궁금했다. 이 책은 그 궁금증을 시작으로 명작의 작품들을 선별하여 묶었다. 화가의 마지막 그림에는 생에 대한 에너지와 열망, 그리고 끝내 놓을 수 없었던 희망과 염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저자는 이중섭, 나혜석, 빈센트 반 고흐, 프리다 칼로 등 화가 19인의 마지막 그림이 알려주는 삶의 매서운 진실을 들려준다. 화가가 생을 마감하기 전 최후로 남긴 작품이라 하면 으레 비장감과 비극성 혹은 무력감과 덧없음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 짐작하기 쉽다. 실제로 책에서 다룬 19인의 예술가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 화가들이 길어 올린 작품에는 생에 대한 에너지와 열망, 끝끝내 놓을 수 없었던 희망과 염원의 메시지가 가득하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이중섭 화가는 마지막 작품 〈돌아오지 않는 강〉에 일제강점기에 국적을 뛰어 넘어 열병 같은 사랑에 빠진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처럼 화가들은 마지막 그림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전쟁터로 간 책들

몰리 굽틸 매닝 지음 / 책과함께 / 328p / 1만 5천 원

히틀러는 독일 사회를 자신의 사상에 맞게 개조하려고 했다. 나치 독일은 라디오와 영화를 이용해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고 '비독일적'인 책과 문헌을 불태웠다.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미국 정부와 출판계는 책이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사상전의 필수 무기라라고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병사들이 호주머니와 배낭에 간편히 휴대할 수 있는 작은 페이퍼백을 제작해서 모든 전쟁터의 미군들에게 보내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진중문고'는 이렇게 태어났다. 미국사와 문학사를 전공한 저자는 한 출판사의 기록보관소에서 군인들이 출판사에 보낸 독자편지를 보고 이 책을 썼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보냈던 수많은 독자편지는 전장에 책을 보급해준 데 대한 고마움과 독서를 통해 얻은 영혼의 울림, 삶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군인, 총과 탱크, 전략뿐 아니라 전쟁을 수행한 또 하나의 무기가 책이었다는 사실은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게도 한다. 사람의 정신을 강건하게 세우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책의 힘을 새삼 느끼게 한다. '진중문고'의 탄생에 얽힌 비화와 이를 통해 전쟁터의 군인과 작가, 시민들이 나눈 특별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NEWS

부산시립무용단 문화예술사절단으로 해외공연 참가

8월 14일 – 18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2016 수라바야 크로스 컬쳐 페스티벌'
8월 19일 – 23일 일본 시모노세키 '2016 조선통신사 한 · 일 문화교류'

8월, 부산시립무용단이 우리 문화의 멋과 흥을 알리는 문화예술사절단으로 인도네시아와 일본을 찾는다.

우선 부산시립무용단은 부산광역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市 문화관광부 초청으로 '2016 수라바야 크로스 컬쳐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8월 15일 개막축하공연에 참석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은 수라바야 컬쳐홀에서 열리는 이날 개막축하공연에서 창작춤 '웃게하소서'를 선보인다. 창작춤 '웃게하소서'는 민요 '장타령'와 영화 'The war' OST 중 '아리랑', 가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인도 가요 'Tunak Tunak tun', 그리고 영화 '파리넬리' 중 '울게하소서' 등 다양한 음악과 움직임을 통해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듯 풍자와 해학이 가득한 작품으로, 페스티벌을 찾는 관객들에게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전할 예정이다. 부산시립무용단은 개막축하공연에 이어 뒷날인 16일 G-Walk 야외무대에서도 같은 작품으로 무대에 오른다.

또, 부산시립무용단은 8월 19일 부산문화재단이 추진하는 '2016 조선통신사 한 · 일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시모노세키를 방문한다. 매년 8월 말, 여름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시모노세키市 시민축제인 '시모노세키 바칸축제'에서 지난 2004년부터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와 시모노세키시의 공동주최로 열어온 '조선통신사 한 · 일 문화교류' 행사는 한 · 일 양국 간의 교류와 평화의 상징인 '조선통신사'를 기념하는 축제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과 한 · 일 문화교류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부산시립무용단은 8월 20일 시모노세키市 일원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며 21일 창작춤 '웃게하소서'로 한 · 일 문화교류공연을 갖는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정선희 명창

제14회 무안 전국 승달 국악대제전 종합대상 대통령상 수상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성악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정선희가 지난 6월 19일 막을 내린 제14회 '무안 전국 승달 국악대제전' 최고의 영예인 일반부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정선희는 예선에서 춘향가중 '오리정 이별' 대목을 불러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본선에 올랐고, 19일 열린 본선과 종합결선에서는 춘향가중 '옥중가' 대목을 불러 당당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소리의 본고장 광주 전남 지역에서 열린 국악대제전에서 부산의 소리꾼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대회 주최측에서도 드문 일로 많은 화제를 모았고, 부산지역의 판소리의 위상을 떨치는 쾌거로 평가된다.

부산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장원, 완산전국국악대제전 명창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정선희는 그동안 박녹주제 흥보가 완창을 비롯해 정정렬제 춘향가 완창, 강산제 심청가 완창, 박동실제 열사가 완창 무대를 가져왔다.

부산문화회관 하반기 가족 아카데미 풍성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토요오감놀이터 얼씨구 樂'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극단 '연극아! 같이 놀자!', 소년소녀합창단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 하반기 참가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부산문화회관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국비사업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의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20팀이 참가한 상반기 '토요오감놀이터 얼씨구樂'은 사물놀이와 소금강습, 가야금 연주체험, 국악관현악단 공연 관람 등 16회의 일정을 마치고 7월 23일 수료 연주회를 가졌다. 하반기 일정은 8월 13일부터 시작, 11월 26일까지 총 16회의 교육이 진행된다.

부산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교육 체험을 선사하고 있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도 상반기 큰 인기를 모았다.

부산시립극단의 '연극아 같이 놀자'는 지난 4월 16일 개강, 총 3기 120명의 수강생들이 연극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은 부모와 함께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동요를 배우고 부르는 시간으로 상반기, 150여 명의 수강생들이 참가, 큰 관심을 모았다.

하반기 교육 일정 및 모집 안내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4, 607-3155

토요오감놀이터 '얼씨구 樂'
기　　간 : 8월~11월(16회) 토요일 오전 10:00~12: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개　　강 : 8월 13일
모집일정 : 하반기 8월 1일(월)~8월 10일(수)
모집인원 : 20팀(가족, 친구, 지인 4인 1팀 구성, 단 자녀는 초등이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극아! 같이 놀자!'
기　　간 : 9월~11월(1기당 4회 교육, 총 5기 운영)
　　토요일 오전 10:00~13:00
장　　소 : 부산시립극단 연습실
프로그램 : 연극과 만나기(자기소개하기, 연극 이해하기),
　　연극과 놀기(관찰하기, 몸으로 표현하기)
　　연극 만들기(토론연극, 대본만들기, 연기하기)
　　연극 체험하기(공연 관람)
모집일정 : 4기 9월 5일(월)~22일(목)
　　5기 10월 10일(월)~26일(목)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
기　　간 : 9월~11월(1기당 4회 교육, 총 5기 운영)
　　토요일 오전 10:00~13:00
프로그램 : 교과서 동요속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동요,
　　마음으로 느끼는 동요, 나만의 동요집 만들기(북아트),
　　샌드아트 애니메이션 감상,
　　작곡가와의 만남(한수성, 조경찬)
모집일정 : 4기 9월 5일(월)~22일(목)
　　5기 10월 10일(월)~26일(목)

부산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관람료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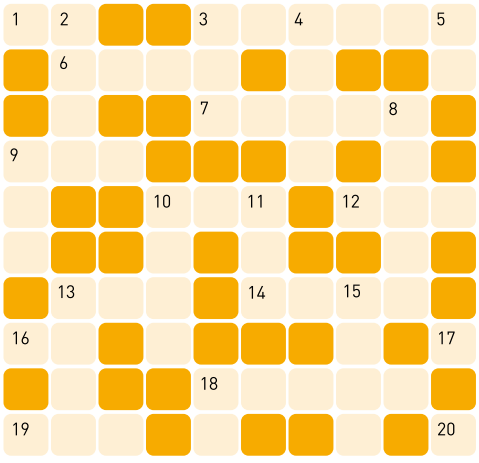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이 시행되는 매월 마지막 주 열리는 부산시립예술단 공연과 기획공연 관람객에 한해서 관람료 50%를 할인해준다.

지난 7월 27일 부산시립합창단 '2016 썸머환타지'를 시작으로 8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청소년을 위한 스쿨 클래식'(8월 30일), 9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부산시립합창단 합동공연(9월 29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10월 25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 특별연주회(11월 29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제야음악회'(12월 31일) 등 매월 마지막 주 정해진 공연에 한해서는 전좌석 관람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의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의 관람료를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①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재즈보컬리스트로, 8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관객과 만난다.

③ 오페라 '돈 조반니', '마술피리'와 더불어 모차르트 3대 오페라로 꼽히는 작품으로, 풍자의 미학과 유쾌한 희극적 요소가 결합된 18세기의 대표적인 오페라 부파이다.

⑥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해발 3,800m의 호수로, 동쪽으로는 볼리비아, 서쪽으로는 페루의 국경에 자리 잡고 있다. 잉카 건국 신화가 시작된 곳으로, 호수 내에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섬이 존재한다.

⑦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 서구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로, '너 자신을 알라'는 질문으로 유명한,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에 집중했다.

⑨ 고대 그리스인들이 일상적인 종교활동, 정치행사, 재판, 사교, 상업활동 등을 펼쳤던 장소.

⑩ 스코틀랜드의 역사극에서 모티프를 취해 공포와 절망 속에서 죄를 더해 가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 고뇌을 섬세하게 표현한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비극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완성도 높은 대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⑫ 소리, 발림과 더불어 판소리 3대 요소 중 하나로, 판소리에서 공연자가 장단 없이 말로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⑬ 재색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유명한 기생으로 박연폭포, 서경덕과 함께 '송도3절'로 불렸으며, '동짓달 기나긴 밤을…'로 시작하는 시조를 포함해 모두 8수 가량의 시조를 남겼다.

⑭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힌다.

⑯ 영화 '쥬라기공원',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애니메이션 '다이너소어', '아이스 에이지'에 등장하는 거대 파충류.

⑰ 놋쇠로 둥근 쟁반같이 만들어 실로 꼰 끈을 달아 왼손에 들고, 헝겊으로 끝을 감은 나무채로 두드려서 소리를 낸다. 특히 북, 장구, 꽹과리와 함께 사물놀이에 쓰인다.

⑱ 미국의 배우, 모델, 가수로 본명은 노마 진 모턴슨.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섹스 심벌의 상징이 되었다.

⑲ 노래, 춤, 연기가 어우러지는 공연양식. 미국에서 발달한 대중예술로 음악, 특히 노래가 중심이 되어 무용(춤)과 극적 요소(드라마)가 조화를 이룬 종합공연물이다.

⑳ 벼루, 종이, 붓과 더불어 문방사우의 하나로, 서예와 그림 그리기에 쓰이는 검은 물감의 일종. 한문으로는 묵(墨)이라 한다.

세로열쇠

② 예루살렘, 로마와 더불어 중세 이후 기독교의 3대 순례지로, 9세기경 성 야곱의 유해가 이 곳에서 발견되면서 야곱과 관련된 신앙이 급속도로 전파되었고, 그 이후 ○○○○까지 걸어서 순례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믿음이 생겨나면서 순례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종교와 관계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힐링을 위해 찾고 있다.

③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조각가로 잘 알려진 입체파 화가. 대표작으로 '게르니카', '납골당', 그리고 한국전쟁을 다룬 '한국에서의 학살' 등이 있으며 회화, 조각, 소묘, 도자기, 시 등 무수한 작품으로 20세기 현대미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④ '요정의 바위'라는 뜻을 지닌, 라인 강 중류의 강기슭에 있는 큰 바위의 이름. 우리에게는 하이네 작시, 질허 작곡의 민요로 더욱 유명하다.

⑤ 작가 최명희가 1980년부터 1996년에 이르기까지 17년 동안 5부작으로 완성한 작품으로, 1930년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전라북도 남원 지방의 무너지는 종가를 지키는 며느리 3대의 삶을 서술한 대하 장편 소설이다.

⑧ 미국 뮤지컬계의 거장 스티븐 손드하임의 대표작으로, 자신의 아내를 탐한 판사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된 이발사 벤저민 바커가 15년이 지난 후 자신과 가족을 파멸로 이끈 판사와 사회를 상대로 잔인한 복수를 계획하는 스릴러 뮤지컬. 팀 버튼 감독, 조니 뎁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다.

⑨ 2010년에 개봉한 이정범 감독의 액션영화. 영화배우 원빈의 첫 단독 주연 영화로, 역대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로는 천구(818만 명), 타짜(684만 명)에 이어 흥행 3위(622만 명)로, 2010년 최고의 흥행작으로 기록되었다.

⑩ 미국 ABC의 TV 시리즈물. 비밀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원의 활약상을 그린 내용으로, 기존 스파이물에서 그려지던 첩보원들과는 달리 주인공이 화학이나 물리학의 기본지식을 이용한 기발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⑪ 찰스 M. 슐츠가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신문에 연재한 4컷 만화 '피너츠'에 등장하는 캐릭터. 우리나라에서는 작품 제목이 아예 '○○○'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마스코트이다.

⑬ 사적 제6호. 삼국시대 가장 큰 절로 대표적 왕실사찰이었다. 신라3보인 장륙존상과 9층목탑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한다.

⑮ 이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 수많은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입경 10㎛ 이하의 먼지로, 최근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⑱ 남자다운 남자를 일컫는 말로, 스페인어로 남자를 뜻한다.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韓國傳統飮食店 큰 집

BNK 부산은행 조은극장

yellow 옐로인 플라워

지난호 정답

사	무	엘	윤	■	말	러	■	단	오
■	하	■	동	요	■	■	오	■	셀
■	마	■	주	■	마	에	스	트	로
페	드	라	■	이	■	■	트	■	■
■	알	■	러	브	스	토	리	■	잔
아	리	랑	■	■	팅	■	아	이	다
가	■	■	화	투	■	■	■	■	르
씨	받	이	■	란	■	리	메	이	크
■	■	세	한	도	■	스	■	중	■
고	인	돌	■	트	럼	본	■	섭	외

7월호 퍼즐 당첨자

옐로인플라워
강순양(서구 해돋이로)
김황연(사하구 사하로)

공간소극장
권윤희(동구 중앙대로)
김현숙(사상구 사상로)
이석우(수영구 수영로)
조정현(남구 우암로)
최우석(남구 석포로)

조은극장
김권종오(사하구 제석로)
김지윤(남구 우암로)
박용진(동래구 시실로)
이동진(중구 중앙로)
전경희(서구 자갈치로)

큰집식사권
김홍수(서구 초장로)
류혜자(해운대구 양운로)
송종호(연제구 반송로)
이혜선(양산시 주진1길)
홍수연(중구 망양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 분	회 비	할인매수
골드회원	50,000원	4매
블루회원	30,000원	2매
그린회원	20,000원	1매

* 단체가입 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회원가입

- 가입신청 : 전화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부산문화회관)
    ※ 홈페이지 가입 : 인터넷(무료)회원 등록 후 마이페이지에서 정기회원 전환 유료결제
- 방문신청 :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2층 예술단사무국 홍보팀

관람권 예매

- 예매 : 전화(607-3100)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8-7(예금주/부산문화회관)
- 수령 :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매표소 제시)

회원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증 발급 우송(7일)
- 골드회원 초대권 2매 증정
  - 가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예술단 5개단체(정기·특별연주회) 중 선택
- 부산시내 공연장 정보를 담은 월간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정보 제공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10~30%)
-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 관람료 할인(10~30%)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단체공연 입장료 할인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문화대학, 시민예능교실, 예술·예능아카데미 등)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가 있는 여행

할인쿠폰 발행

- 공간소극장, BNK부산은행조은극장, 필하모니, 모차르트, 송림정, 카페 빈센트, JUWA Coffe, Gallery&Cafe 가우디, 메가박스(서면점), 엘로인플라워(부산문화회관 입구 본점, 대연혁신점), 안경나라(동래점), 크라운하버호텔 부산, 새날한의원, 굿윌치과병원, 웰니스병원, 엘리움여성병원, 세흥병원 ※ 업체사정으로 변경 가능

주의사항

- 입장권 예매취소는 공연하루 전 16: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
- 입장권 예약하고 3일 이내 미입금 시 예매취소
  ※ 정기회원(유료) 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

가입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051-607-3100, FAX 051-607-3109
- 평일 09:00~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공연시간에 쫓겨 힘드신 적 많으시죠!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남새밭
612-9566

킴스볼링장
625-8704

통큰한우
612-8801

문화손칼국수
611-5734

Vincent
623-0772

The Musical
868-3311

The Classic
868-3311

수빈추어탕
626-7111

남구보훈회관

문화꽃집
622-9722

아름분식
628-4467

옐로 인 플라워
080-337-3370

1F 송림정 624-2270
B1 'Hyun Woodwork' 목공방 622-6985

문화악기
625-7275

문화쌈밥
626-2292

동막골 청국장
611-3589

미미복국
628-8009

문화복국
621-7040

628-2592 2F 필하모니
245-5441 1F 국도예술관
622-1456 모차르트

콘텐트 오르간
평강음악사
626-7900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공원 칼국수
611-3913

가우디
621-5788

juwa 커피
070-755-2188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Since 1981 philharmony 필하모니

식사할인 **10**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 626-2592

MOZART 모차르트

음료할인 **10**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 622-1456

송림정

식사할인 **5** %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4-2270

vin cent 핸드드립 Espresso Coffee 전문점 Take out

커피할인 **10** %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3-0772 (커피에 한함)

the first mission juwa coffee

음료할인 **10** %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070-755-2188

(주)GauDi 2015 Gallery & Cafe

음료할인 **10** %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1-5788

yelloin

꽃할인 **10**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입구 본점 T. 080-337-3370
대연혁신점 T. 627-1253

MEGABOX 서면점

티켓할인 **2** 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평일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 조조, 심야, 3D제외)

안경나라

상품할인 **20**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안경나라 동래점 (일부품목제외)
T. 505-8987

CROWN

Deluxe 객실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정상가 300,000원 → 할인 99,000원
(세금포함/조식불포함/성수기 기간제외)
T. 678-1000

새날한의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752-9811(광안)
T. 747-9812(해운대)

굿윌치과병원 덕천 | 하단 | 서면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330-6000(덕천) / T. 209-6000(하단) / T. 606-6000(서면)

웰니스병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엘리움 여성병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929-5000

세흥병원 SEHUNG HOSPITAL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사업

부산문화회관 토요오감놀이터

얼씨구樂

2016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가족과 친구가 함께 우리 국악기를 만들고 배우면서 소통하는
부산문화회관 토요요강 놀이터 '얼씨구樂'의 즐거운 난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운 영 기 간	2016년 4월 ~ 11월(상반기 16강, 하반기 16강) •시 간 : 매주 토요일 10:00~12: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국제회의장)
모 집 인 원	4인이 1팀 구성, 총 20팀 선착순 모집 ※ 팀 구성은 학생을 둔 가족, 친척, 친구 등으로 구성 (예, 초등자녀를 둔 4인 가족, 초등자녀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3대 가족, 두 친구 가족 등)
프 로 그 램	장구조립, 사물놀이, 소금강습, 가얏고마을 가야금 연주체험, 국악관련악단 공연관람
신 청 기 간	하반기 8월 1일(월) ~ 8월 10일(수)
신 청 방 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선착순 접수
교 육 강 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전학수, 장미진, 조은경) 특별강사(김한동, 오종수, 이미숙)
수 강 료	무료(일부 재료비 별도)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051-607-3104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 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2016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여 전국의 문예회관에서 운영하는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2016. 4~11
매주 토요일 10:00~13:00
부산시립극단 연습실

연극아! 같이 놀자!

프로그램 연극과 만나기 | 자기소개하기 | 연극 이해하기 | 연극과 친해지기
연극 들여다보기 | 연극과 놀기 | 관찰하기 | 몸으로 표현하기
연극 만들기 | 토론연극 | 대본만들기 | 연기하기 | 연극 체험하기 등
모집대상 1·2·3기 초등학생 40명 / 4·5기 중학생 40명
강 사 곽종필(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황창기(부산시립극단 단원), 김은옥 (부산시립극단 단원)

기수	교육일정	모집대상	접수일정
4기	9월 24일/ 10월 1일/8일/15일	중학생 40명	9월 5일(월)~22일(목)
5기	10월 29일/ 11월 5일/12일/19일	중학생 40명	10월 10일(월)~26일(목)

엄마랑 아빠랑 함께하는 교과서 동요여행

2016. 4~11
매주 토요일 10:00~13: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프로그램 교과서 동요속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동요, 나만의 동요집 만들기(북아트)
엄마와 함께 부르는 추억의 동요
작곡가와의 만남 : '아빠 힘내세요'의 작곡가 한수성,
'어린 왕자에게'의 작곡가 조경찬
모집대상 초등 3~6학년 50명, 학부모
강 사 이건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이영옥, 노금선, 김양자
한수성(작곡가), 조경찬(작곡가), 김효선(동화구연 강사), 김태연(북아트 강사)

기수	교육일정	접수일정
4기	9월 24일/ 10월 1일/8일/15일	9월 5일(월)~22일(목)
5기	10월 29일/ 11월 5일/12일/19일	10월 10일(월)~26일(목)

2016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교육기간. 4월 - 11월(1기당 4회 교육, 총 5기 운영), 매주 토요일 10:00~13:00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051.607-3155 접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수강료무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 문예회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감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발적 문화예술 향유 능력 및 정서함양, 감수성 및 소통능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토요 여가 문화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악전문단체

타로

박성희
타로 공동대표

신문범
타로 공동대표

프로그램
태평소와 사물놀이
창작 성악곡 '시연가'&'배 띄워라'
장구 합주 '다드리'
모듬북 합주 '새울림'
'아리랑', '돌아와요 부산항에' 외

견초
강열우

음향감독
박진수

대금
손한별

피리 & 태평소
김경수

신디사이저
이지영

첼로
고영철

베이스기타
박경동

드럼
최권호

일렉기타
최만호

2016. 9. 6.(화) 19: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티켓 | R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 051)607-6065 / 051)607-3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BU3AN CHAMBER MUSIC FESTIVAL

2016 금난새와 함께하는 부산챔버 뮤직 페스티벌

예술감독 및 지휘 **금 난 새**

듀오 케미 (Duo KeMi) Guitar Jacob Kellermann Violin Daniel Migdal
트리오 제이드 (Trio Jade) Piano 이효주 Violin 김다미 Cello 이정란
Camerata BS Piano 정다슬 Clarinet 백양지 Flute 서선미리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9월 8일(목) - 9일(금) 7:30pm
9월 10일(토) 2:00pm

부산시립 미술관

9월 9일(금) 2:00pm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주관 |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사)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매 | http://culture.busan.go.kr 티켓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 051)607-6066

화승에 다닙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가구공방을 다니며
가구를 만드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곳.
요리도, 커피도, '꿈틀 프로젝트'를 통해
나를 나눔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곳.
텃밭을 일구어 수확한 푸른 채소를 나눠 먹고,
그 채소를 회사 식당에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화승이랑'으로 나눔과 도움의 보람을 주는 곳.
장애 비장애 형제들과 함께 놀며 그 안에서
더 큰 나를 발견하게 하는 곳.
교육도, 문화도 함께라는 가치를
더 크고, 더 멀리 나누는 곳.
희망 가득한 이곳에
내 꿈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화승에 다닙니다.

화승그룹
HWASEUNG

화승그룹

〔국내〕**화승R&A 화승소재 화승T&C 화승공조 화승인더스트리 화승엑스윌 화승네트웍스**

〔해외〕**중국** – 화승기차배건(태창)유한공사(HST), 북경화승R&A기차배건유한공사(HSB), 화승특종고무(태창)유한공사(HSR),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HSD), 청도장천제화유한공사(HSQ), 화승태양능재료(태창)유한공사(HSP), 화승상해국제무역유한공사(HSS), 화승호천(태창)국제무역유한공사(HSTN), **미국** –화승아메리카홀딩스(HSAH), 화승앨라배마(HSAA), 화승USA(HSAU), 화승네트웍스아메리카(HSNA) **멕시코** – 화승멕시코(HSAM), **인도** – 화승인도(HSI AUTO), 화승인도네트웍스(HSNI), 화승소재인도(HSMI) **터키** – 화승터키(HSTR), **베트남** – 화승비나(HS VINA), 화승붕따우(HVT), 화승베트남케미컬(HVC), 장천비나(CCVN), 화승베트남네트웍스(HSVN)